

# 창비 중학교 국어 1-1

## 평가 문제집

### [정답과 해설]

1. 우리는 중학생이다	2
2. 마음을 담은 언어	11
• 실전 중간고사	18
3. 나는 날마다 자란다	20
4. 정보를 요리합니다	30
• 실전 기말고사	37

창비  
중학교  
국어

# 1. 우리는 중학생이다

## [1] 비유와 상징

### ● 확인 문제

본문 9~10쪽

01 가위 02 ① 03 ③ 04 ② 05 ③ 06 ①

01 이 시에서는 ‘가위’를 ‘나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02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다듬으며 느끼는 설레고 즐거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낭송하여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② 무겁고 엄숙하다는 것은 분위기나 의식 따위가 장엄하고 정숙한 분위기를 의미하므로 이 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 ③ 어둡고 침울하다는 것은 걱정이나 근심에 잠겨서 마음이 우울하다는 것이므로 이 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 ④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서운하거나 초조한 느낌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5~6연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 ‘나’를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꽃’에 빗대었다. 이러한 비유법을 은유법이라고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직유법은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방법이다.
- ② 의인법은 사물이나 동식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 ④ 활유법은 무생물을 생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 ⑤ 반어법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04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어려움을 이겨 내고 평화로운 곳(또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말하는 이는 의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순순히 따르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희망을 버리고 단념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④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앞으로 잘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05 ‘내’와 ‘고개’는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하며, ‘숲’과 ‘마을’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고 도달하고 싶은 평화로운 공간(목표)이므로 서로 대조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고개’와 ‘마을’이 의미상으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내’와 ‘고개’는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② ‘숲’과 ‘마을’은 평화로운 공간, 또는 목표라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④ ‘고개’는 고난이나 시련을, ‘바람’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존재로 의미상 대립하지 않는다.
- ⑤ ‘민들레’와 ‘까치’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이다.

06 1행과 2행의 마지막 글자 ‘로’, 3행과 4행의 마지막 글자 ‘갈’과 ‘길’의 ‘ㄹ’, 5행과 6행의 마지막 글자 ‘고’, 9행과 10행의 마지막 글자 ‘로’가 반복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말하는 이는 일관되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글자 수는 규칙적이지 않다.
- ④ 1연과 5연이 반복되는 수미 상관 구조를 띄고 있다. 2연과 4연의 구조는 같지 않다.
- ⑤ 앞으로의 삶의 태도에 대해 다짐할 뿐,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핵심 쏙

본문 9~10쪽

1 은유, 나비, 꽃 2 숲, 마을

###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11~12쪽

01 ④ 02 (1) 고개 (2) 숲 (3)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03 ③  
04 ② 05 ‘나’는 장차 나비가 되어 훨훨 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애벌레라고 표현하였을 것이다.

01 이 시는 가위질을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에 비유하여 머리를 다듬으면서의 설레고 기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외모의 변화를 관찰하듯 표현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은유법을 활용하여 머리를 다듬으며 ‘나’가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는 느낌을 ‘꽃’에 빗대었다.

- ② ‘사각사각’, ‘팔랑팔랑’ 등의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생한 느낌을 주었다.
- ③ 활유법을 활용하여 무생물인 ‘가위’를 ‘날아다닌다’라며 생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 ⑤ 머리카락을 자르는 모습을 나비가 날아드는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난다고 표현하였다.

**02** 화자는 ‘내’와 ‘고개’를 지나 ‘숲’과 ‘마을’로 가고자 하고 있다. ‘숲’과 ‘마을’로 가는 동안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등을 만나게 된다.

**03** 말하는 이는 원래의 시나 모방 시나 둘 다 ‘나’이다. 말하는 이를 바꾸지는 않았다.

**04** ②는 ‘무엇은 무엇이다’를 사용하여 ‘침대’를 ‘과학’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05** ‘나’와 애벌레의 공통적인 특징을 생각해 본다.

**소단원 핵심 정리**

본문 13쪽

① 의성어   ② 가위   ③ 머리카락   ④ 길   ⑤ 운울   ⑥ 고개  
⑦ 평화   ⑧ 민들레   ⑨ 인생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4~15쪽

**01** ②   **02** ④   **03** ①   **04** 직유법,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05** 풀풀 날린다는 점이 비슷해서 머리카락을 꽃가루에 빗대었다.  
**06** ④   **07** ③   **08** ②   **09** ④   **10** ③   **11** ②

**01** 후각적 심상은 코를 통해 느끼는 향기를 뜻한다. 이 시에는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으며, 주로 시각적 심상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위의 움직임을 나비가 날아다닌다고 표현하며 밝고 환한 분위기를 띄고 있다.
- ③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상적 경험을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
- ④ ‘가위’는 ‘나비’에, ‘나’는 ‘꽃’에 빗대는 등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팔랑팔랑’, ‘사각사각’, ‘풀풀’ 등의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02** ‘나비’는 말하는 이가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며 본 ‘가위’의 모습을 빗댄 보조 관념으로, 말하는 이가 실제로 나비를 본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풀풀 날리는 꽃가루’라는 부분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다.
- ② 5~6연을 통해 떠올릴 수 있다.
- ③, ⑤ 2~3연을 통해 떠올릴 수 있다.

**03**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댈 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원관념’, 다른 대상은 ‘보조 관념’이라고 한다. ㉠의 원관념은 ‘나’이다.

**오답 피하기**

- ② ‘나비’는 ‘가위’의 보조 관념이다.
- ③, ⑤ ‘팔랑팔랑’과 ‘미용실 누나 손’은 비유법과 관계가 없다.
- ④ ‘은빛 가위’는 ‘나비’의 원관념이다.

**04** 직유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시에서 직유법이 쓰인 부분은 1연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이다.

**05** ‘꽃가루’의 원관념은 ‘머리카락’이다. 이 시에서 ‘머리카락’과 ‘꽃가루’는 풀풀 날린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06** 비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빗대는 대상이 유사성을 지닐 때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비유는 다른 대상에 빗댄 표현으로 참신한 느낌을 준다.
- ② 대상을 생생하고 인상 깊게 전달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한다.
- ③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한다.
- ⑤ 비유에서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댈 때, 표현하려는 대상은 ‘원관념’, 다른 대상은 ‘보조 관념’이라고 한다.

**07** 3연에 나열된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은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대상이 아니라 여정 중에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나 희망을 주는 존재로 이해된다.

**오답 피하기**

- ① ‘로’, ‘고’와 같은 글자를 반복하고, 1연과 5연에서는 같은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내’와 ‘고개’는 고난이나 시련을 뜻하고, ‘숲’과 ‘마을’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드러내므로 서로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 ④ 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문장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다. 말하는 이는 이를 통해 ‘길’의 연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1연, 5연과 같이 시의 첫 부분과 끝부분이 같은 구조를 취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08** 말하는 이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자신이 설정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항상 나아가고자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길을 걷고자 한다.
- ③ ‘내’와 ‘고개’로 상징되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
- ④ 말하는 이가 가고자 하는 ‘숲’과 ‘마을’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낙관적인 미래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지속해서 길을 가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09**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내’와 ‘고개’라는 단어로 상징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⑤ 모두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말하는 이는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길’을 걸겠다고 하며 자신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10**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은 ‘길’을 가면서 즉 살아가면서 만나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내’, ‘고개’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는다고 해서 산을 오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길’은 공간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길’을 뜻한다.
- ④ 말하는 이는 ‘숲’과 ‘마을’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길’을 걸어 나가고 있다.
- ⑤ 1연과 5연이 동일한 구조를 띠는 것은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11** ‘바람이 일고’에서 ‘일다’는 ‘없던 현상이 생기다.’라는 뜻이다. ②의 ‘일다’는 ‘곡식 등을 그릇에 담아 물을 붓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내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소단원 고난도 문제**

본문 16~17쪽

- 01 ③ 02 ② 03 ④ 04 ① 05 나무 같은 친구, 호랑이 같은 선생님, 해바라기처럼 웃는 동생 06 ‘고난’과 ‘시련’ 07 ④ 08 ③ 09 ①

**01** 말하는 이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머리카락을 자르면서의 설레고 기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꽃’에 빗대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나’를 ‘꽃’에 비유하였다.
- ② ‘은빛 가위’를 ‘은빛 나비’에 빗대면서 참신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팔랑팔랑’, ‘폴폴’이라는 의태어, ‘사각사각’이라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머리 자르는 장면을 생생하게 만들었다.
- ⑤ 평범한 일상을 ‘나비’와 ‘꽃’의 만남으로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새롭고 깊은 의미를 형성하였다.

**02** ‘은빛 가위’는 ‘은빛 나비’의 원관념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나비’는 ‘가위’의 보조 관념이다.
- ③ ‘꽃가루’는 ‘머리카락’의 보조 관념이다.
- ④ ‘은빛 나비’는 ‘은빛 가위’의 보조 관념이다.
- ⑤ ‘꽃’은 ‘나’의 보조 관념이다.

**03**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는 감정을 담아 ‘꽃’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외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소재는 아니다.
- ② 원관념인 ‘나’와의 유사성은 아름답고 소중한다는 점이다.
- ③ 나비의 모습과는 관계가 없다.
- ⑤ 미용실 누나의 실력과는 관계가 없다.

**04** ㉠에 쓰인 표현법은 활유법이다. 활유법이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으로, 이 시에서는 무생물인 ‘가위’를 ‘날아다닌다’라고 표현하였다. 의인법은 무생물이나 동물을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반면 활유법은 무생물을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생명체에 비유한다는 점에서 둘의 차이점이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③, ④, ⑤ 사람이 아닌 대상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의인법이다. ②, ③, ④, ⑤ 모두 의인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05** 직유법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같이’, ‘~듯이’, ‘~처럼’ 등의 표현을 활용하여 원 관념을 보조 관념에 직접 빗대는 경우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

**06** ‘길’이 인생이나 삶을 뜻한다면 ‘내’와 ‘고개’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애물로 읽힐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난이나 시련, 어려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07** 이 시의 주제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이다.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노력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룬다는 것이다. ‘내’와 ‘고개’로 상징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므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화자가 말하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무관하다.
- ③ 여유를 가지고 살겠다는 태도는 주제와 관계가 없다.
- ⑤ ‘새로운 길’은 ‘새로운 방법’을 뜻하지 않는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뜻한다.

**08** ㉠은 언제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길을 걸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말하는 이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
- ② ‘새로운 길’은 남들과 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걷는 길을 뜻한다.
- ④ ㉠의 의미와 관계가 없다.
- 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것은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마음가짐을 다잡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09** 시의 첫 부분과 끝부분이 같은 수미 상관 구조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이 시에서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수미 상관 구조를 활용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부정적인 사회 현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민들레’나 ‘까치’는 부정적인 의미를 띄지 않는다. 오히려 길을 걷다 만나는 다양한 존재, 희망을 주는 존재로 이해된다.
- ④ 이 시에는 다양한 상징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 ⑤ 화자는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다.

## [2] 예측하며 읽기

● **확인 문제**

본문 19~23쪽 ●

**01** ② **02** 누구도 정확하게 언제가 6시 25분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03** ②, ③ **04** ④ **05** ③ **06**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한다. **07** ② **08** ⑤ **09** ① **10** 도시 **11** ③, ④ **12** 도덕 선생님 **13** ① **14** ② **15** 시간에 맞춰 더욱 치열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 때문이다.

**01** ‘따라서’는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의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접속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한다.
- ③ ‘게다가’는 ‘그러한 데다가’라는 의미로 서로 비슷한 내용을 이어 줄 때 사용한다.
- ④ ‘하지만’ 역시 ‘그러나’와 마찬가지로 앞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한다.
- ⑤ ‘그리고’는 서로 비슷한 내용을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사용한다.

**02** 100여 년 전에는 누구도 정확하게 언제가 6시 25분인지 알 수 없었기에 “내일 아침 6시 25분에 깨워 줄게.”라는 말은 결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

**03** (나)의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 철도가 나와 시간이 하나가 되기 전의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맞추었는지, 철도는 어떻게 시간을 하나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04** ‘시간이 길다.’는 길이를 나타내는 말로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다)에서 우리에게도 시계 없이 시간을 재는 일이 흔한데 그 예로 ‘점심때쯤 만나지 뭐.’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다)에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시간을 시계로 재지 않았다고 하였다.
- ③ (라)에서 사실 우리 두뇌에는 시간을 잡아 주는 기관이 따로 없다고 하였다.
- ⑤ (다)에서 트로브리안드섬의 사람들은 ‘팔룰로’라는 벌레로 계절을 가늠한다고 하였다.

**05** ③은 시계를 사용하여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표현한 방법이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④, ⑤ 시계 없이 일에 따라 시간을 표현한 말이다.

06 '하지만'은 역접 관계에 쓰이는 접속 표현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인다.

07 (마)를 통해 100여 년 전에는 마을끼리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제각각이어도 불편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08 기차는 운행 시 마을마다 시간이 제각각인 경우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곳의 시간이 같아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마차의 속도는 시속 17킬로미터 정도지만 기차는 시간당 60킬로미터를 넘게 달린다고 하였다.
- ② 예전에는 농사짓고 물건을 만드는 일이 대부분 한 동네에서 이루어졌지만 철도가 놓인 다음에는 달라졌다고 하였다.
- ③ 철도가 놓인 도시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하였다.
- ④ 기차끼리 마주치면 대형 사고가 된다고 하였다.

09 '무지막지하다'는 몹시 무지하고 상스러우며 포악하다는 의미이다. 글쓴이는 철도 시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예찬적은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태도를 말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긍정적은 그러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관조적은 행동력이 없이 무관심하게 보거나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말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희망적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태도를 말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기차(철도)의 등장으로 산업이 발전하며 도시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

11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갔기 때문에 시간 엄수가 중요한 도덕이 되었다. 따라서 시계가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다.

12 '시간 엄수'가 꼭 필요한 도덕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시계를 '도덕 선생님'에 빗대었다.

13 시간이 하나가 되자 사람들이 시간에 얽매이게 된 것은 맞지만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② (카)에서 인터넷은 철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시간을 옥죄고 있다고 하였다.

③ (카)에서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로 다잡는 '컴퓨터 표준 시간'까지 등장하는 모양새라고 하였다.

④ (차)에서 시간이 하나가 되자 시계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⑤ (카)에서 뉴욕과 서울의 시간은 당연히 다른데 세계화된 세상은 이런 차이를 무시해 버린다고 하였다.

14 글쓴이는 시간에 쫓겨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글쓴이는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글쓴이는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으리라 여기고 있다.
- ③, ⑤ 글쓴이는 성과를 얻거나 경쟁에서 이기는 삶을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 ④ 글쓴이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적응하여 치열하게 사는 삶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15 시간에 맞춰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세상에 대한 답답함을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에 가슴이 답답해 온다고 표현하고 있다.

**핵심 쏙**

본문 19~23쪽

1 시간, 50, 시계 2 일, 시계 3 기차, 도시 4 식사, 컴퓨터 표준 시간 5 리듬, 결과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24쪽

01 ④ 02 ③

01 글쓴이는 시계 없이 시간을 재는 것이 시계로 시간을 재는 것보다 더 올바른 때가 많다고 여긴다.

**오답 피하기**

- ① 기차가 등장하고 도시 간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산업도 함께 발전해 왔다.
- ② 인터넷이 발달하며 '컴퓨터 표준 시간'이 등장하여 사람들의 삶을 더욱 옥죄었다.
- ③ 100여 년 전에는 시계가 없어 정확한 시간 약속을 할 수 없었다.
- ⑤ 세상의 시간이 통일되며 '시간 엄수'는 꼭 지켜야 하는 도덕이 되었다.

**02**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활동은 읽기 중에 하는 활동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④, ⑤ 모두 읽기 전에 하는 예측하기 활동이다.

### 소단원 핵심 정리

본문 25쪽

- ① 수필 ② 기차 ③ 시간 ④ 사례 ⑤ 도시 ⑥ 시간 ⑦ 여유  
⑧ 답답함 ⑨ 제목 ⑩ 접속 ⑪ 배경지식

###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26~27쪽

- 01 ④ 02 ③ 03 ③ 04 그렇다면, 만들었을까? 05 ⑤  
06 그 시절, 시계는 마치 도덕 선생님과 같았다. 07 ② 08 ②  
09 ⑤

**01** 이 글은 통일된 시간이 등장하게 된 과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주요 내용은 철도의 역사가 아니다. 철도의 발전과 통일된 시간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③ 100여 년 전 시간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제각각이어서 다른 도시 사람들과 시간 약속을 잡기는 매우 어려웠음이 언급되어 있지만 시간이 도시마다 달라서 생긴 문제가 주요 내용은 아니다.  
⑤ 시간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말하려는 글이 아니다.

**02** '3월 18일 7시'는 일에 따라 시간을 켜 것이 아니라 시계를 이용하여 시간을 정확하게 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사실 우리 두뇌에는 시간을 잡아 주는 기관이 따로 없다고 하였다.  
② 몇 시는 몰라도 몇 분까지 정확히 가려내는 시계가 드물었고 태엽으로 가는 시계는 열이면 열, 조금씩 다르게 재깍거렸다고 하였다.  
④ 시간은 철도가 나온 뒤에야 하나가 되었다고 하였다.  
⑤ 시간을 그릴 때는 길이를 나타내거나 동작을 설명하는 말들이 쓰이곤 한다고 하였다.

**03** 우리에게서 이상하지 않은 약속이 50여 년 전에는 난감한 약속이었다는 내용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④는 역접의 의미를 지니는 '그러나'가 사용되어야 한다. ⑥는 시간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제각각이었으므로 다른 도시 사람들과 시간 약속을 잡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내용을 연결해 주는 '따라서'가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답 피하기**

'그래서'는 앞뒤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질 때 사용한다. '하지만'은 앞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한다. '그리고'는 비슷한 내용을 병렬적으로 나열할 때 사용한다.

**04** '그렇다면 ~ 만들었을까?'에 해당하는 (가)의 마지막 부분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05** 글쓴이는 '철도 시간'에 대해 '무지막지했다.'고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낙관적'은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태도를 말한다.  
② '방관적'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태도를 말한다.  
③ '긍정적'은 그러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  
④ '감상적'은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쉽게 기뻐하는 태도를 말한다.

**06** '그 시절, 시계는 마치 도덕 선생님과 같았다.'는 시계를 도덕 선생님과 빗댄 직유법이 활용되었고,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07** 글쓴이는 '철도 시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의 '무지막지하다'는 몹시 무지하고 상스러우며 포악하다는 의미로 '철도 시간'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난다.

**오답 피하기**

- ① 철도가 시간에 끼친 영향을 설명한 부분이다.  
③, ④, ⑤ 마차와 다른 기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08** ㉡의 '땀달하다'는 '남을 단단히 으박질러서 혼을 낸다'는 의미이다. 이는 시간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이다.

**09** 글쓴이는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더라도 치열하게 사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답답해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시간 엄수'가 아주 중요한 도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비도덕적이라고 눈총을 받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이 발달하며 컴퓨터 표준 시간까지 등장하여 더욱 강하게 시간을 옥죄게 되었다.
- ③ 컴퓨터 표준 시간의 등장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더욱 바쁘게 지내게 되었다.
- ④ 기차가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재는 것이 필요했다.

### 소단원 고난도 문제

본문 28~29쪽

01 ⑤ 02 ⑤ 03 산업이 발전하여 여러 도시가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04 ③ 05 이제 '시간 엄수'는 아주 중요한 도덕이 되었다. 06 ⑤

- 01 산업이 발전하며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내용은 있으나, 산업의 발전으로 정확한 시계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이 생겼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나)에서 시간이 통일된 계기는 철도의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시간이 통일되기 전에는 일에 따라 시간을 재며 살아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 ③ (가)에서 일에 따라 시간을 재는 방법과 시계를 이용해 시간을 재는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에서 우리가 흔히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여러 예시를 들고 있다.

- 02 (가)에서 정확하게 시계로 시간을 재는 경우와 일에 따라 시간을 재는 경우를 비교하여, 일에 따라 시간을 재는 것이 더 올바른 때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글쓴이는 '땅이 녹고 날이 풀릴 때'와 같이 농부들이 일에 따라 시간을 재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 ② 시계 없이 시간을 재는 것이 올바른 때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③ 두뇌에는 시간을 잡아 주는 기관이 따로 없어, 일어나는 일과 느낌을 더듬거리며 시간의 흐름을 짚어 낸다고 하였다.
- ④ 글쓴이는 일에 따라 시간을 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 03 산업이 발전하면서 여러 도시가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긴장하여 시간을 단속해야 했다.

- 04 '그러나'라는 접속 표현을 참고하면,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차는 지치는 법 없이 시간에 맞춰 달려야 했다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그러나'라는 접속 표현에 어울리지 않는다.
- ④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 ⑤ 앞서 '철도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므로 '시계의 탄생'과 관련이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 05 '시간 엄수'가 아주 중요한 도덕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시계를 도덕 선생님에 빗대었다.

- 06 시계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⑤이다. 정확한 시간을 모르면 자꾸 불안해진다는 것은 시계에 지배를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이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과 어긋나는 내용이다.
- ② 컴퓨터 표준 시간이 생기며 사람들이 시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일하게 되어 버렸다.
- ③ 철도와 인터넷 덕분에 시간에 따라 살게 된 것은 사실이나, 글쓴이의 의견과는 다르다.
- ④ 시계가 정확해진 것이 일 처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데 도움은 되었는지 모르나, 글쓴이의 의견과 어긋난다.

### 대단원 종합 문제

본문 30~33쪽

01 ④ 02 ① 03 (1) (살랑살랑 나는) 은빛 나비 (2) 은유법, 활유법 04 ④ 05 ⑤ 06 ② 07 ⑤ 08 ③ 09 ② 10 (1) '땅이 녹고 날이 풀릴 때'가 더 큰 지혜를 준다. (2) 시계 없이 시간을 재는 배꼽시계가 시계보다 믿음직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11 (1) 속도는 시간당 60킬로미터를 넘게 달린다. (2) 절대 지치는 법이 없다. 12 ② 13 ④ 14 ① 15 ① 16 ④ 17 ① 18 ③ 19 예컨대(예를 들어)

- 01 (나)의 말하는 이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데, 이 길은 개성 있고 다양한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는 길'을 뜻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미용실 누나 손에 들린 은빛 가위’를 통해 (가)의 말하는 이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에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며 본 ‘가위’, ‘머리카락’ 등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의 말하는 이는 ‘숲’, ‘마을’로 상징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⑤ (가)와 (나)의 말하는 이 모두 ‘나’로 시 속에 직접 등장한다.

- 02**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상적인 소재에 의미를 부여하여 한 편의 시로 창작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부정적인 현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드러낸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관찰하고 있는 사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뿐 우울한 감정을 담아 표현하지 않았다.
- ⑤ 말하는 이의 마음과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03** ‘미용실 누나 손에 들린 은빛 가위’를 ‘살랑살랑 나는 은빛 나비’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빗대는 은유법,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활유법이 쓰였다.

- 04** 민섭이는 (나)에 쓰인 ‘길’이 인생이나 삶을 뜻한다고 하였다. ④의 ‘길’은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인생이나 삶을 뜻하므로 민섭이가 말한 ‘길’의 의미와 유사하다.

**오답 피하기**

- ①, ③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한다.
- ②, ⑤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의미한다.

- 05** (나)의 말하는 이는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견뎌 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닌 것은 ⑤이다.

**오답 피하기**

- ①, ③ (나)의 말하는 이의 태도와 관계가 없다.
- ② 세상에 힘든 일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하여 세상에 대해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태도로, (나)의 말하는 이의 태도와 상반된다.
- ④ 비관적이거나 자포자기하는 태도는 (나)의 말하는 이와 반대되는 것이다.

- 06** ④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한다. ②는 수행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 맞닥뜨리게 된 시련, 고난이라고 볼 수 있다.

- 07** ①은 어렵하거나 짐작하여 헤아린다는 의미로 쓰였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⑤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붙들어 손에 넣다는 의미로 쓰였다.
- ② 일, 기회 따위를 얻다는 의미로 쓰였다.
- ③ 기세를 누그러뜨리다는 의미로 쓰였다.
- ④ 사람이 어떤 자세를 다른 사람 앞에서 취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 08** ④의 앞 문장은 시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뒷 문장은 시계 없이 일에 따라 시간을 쥔 때가 더 올바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④는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됨을 알려 주는 역접의 접속 표현 ‘하지만’이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 09** ‘땅이 녹고 날이 풀릴 때’는 시계 없이 일에 따라 시간을 쥔 방법이다. ②는 시계를 이용하여 ‘다섯 시 삼십 분’이라는 시간을 쥔 것이기 때문에 ⑥와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배가 좀 출출해지면’은 시계 없이 일에 따라 시간을 쥔 표현이다.
- ③ ‘냄비의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시계 없이 일에 따라 시간을 쥔 표현이다.
- ④ ‘첫 눈이 내리는 날’은 시계 없이 일에 따라 시간을 쥔 표현이다.
- ⑤ ‘얼음이 녹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면’은 시계 없이 일에 따라 시간을 쥔 표현이다.

- 10** ‘배꼽시계가 시계보다 믿음직하다’는 것은 시계를 이용해 정확한 시간을 재는 것보다 일이나 우리의 감각에 따라 시간을 재는 것이 믿음직하다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낸 말이다.

- 11** (가)에서 마차의 속도는 시속 17킬로미터 정도였지만 기차는 시간당 60킬로미터를 넘게 달린다고 하였다. 또한 (다)에서 마차는 말이 지칠 때까지만 달리지만 기차는 절대 지치는 법이 없다고 하였다.

- 12** 글쓴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시간 엄수’를 아주 중요한 도덕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답 피하기**

- ① (라)에서 이제 ‘시간 엄수’는 아주 중요한 도덕이 되었다고 하였다.
- ③ (다)에서 시간은 모든 것을 꿰뚫는 규칙처럼 되어 갔다고 하였다.
- ④ (라)에서 시간은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닦달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 ⑤ (나)에서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여 시간을 단속해야 했다고 하였다.
- 13** ㉠은 시계가 불티나게 팔린 시기를 나타낸다. 시계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시기는 철도가 더 많이 놓이고 세상이 가까워지면서부터임을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시계가 불티나게 팔린 것이 이즈음이라고 했으므로, 이때는 시계가 발명되고 난 다음이다.
- ② 마차의 말이 지칠 때에는 말에게 휴식을 주어야 할 때이다. 이것과 시계가 불티나게 팔린 시기와는 관계가 없다.
- ③ 철로 위에서 기차끼리 마주치면 대형 사고가 된다고 하였다. 시계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시기와 관련이 없다.
- ⑤ 농사짓고 물건 만드는 일이 한 동네에서 일어난 때는 철도의 발달 이전 시기로, 특별히 시계가 필요한 때가 아니었다.

- 14** ‘닦달하다’는 남을 단단히 욕박질러서 혼을 낸다는 뜻이다. ㉠에서는 시간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닦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 ③ 시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닦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④ 시간이 통일된 후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글쓴이의 견해와 유사한 말이다.

- 15** 예측하며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자신의 배경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 구조, 주제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 각 문단의 주요 문장에 밑줄을 치는 것은 글의 이해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예측하며 읽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진다.

**오답 피하기**

- ②, ③, ④, ⑤ 모두 읽기 전과 읽기 중에 할 수 있는 예측하며 읽기의 방법이다.

- 16** <보기>는 독자가 이 글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7** ㉠은 시간이 급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경쟁이 초 단위를 따질 정도로 점점 심해졌다는 의미이다. ㉠의 ‘다투다’ 역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굉장히 급하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의 의미와 유사하다.

**오답 피하기**

- ② 승부나 우열을 겨루다는 의미로 쓰였다.
- ③, ④, ⑤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우다는 의미로 쓰였다.

- 18** 글쓴이는 크게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 살 수 없고, 내 마음껏 사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글쓴이 의견의 일부이나, ㉠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다.
- ④ 글쓴이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원한 것은 아니다.
- ⑤ 글쓴이는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 최대의 결과를 내야하는 지금의 삶을 안타깝게 여긴다.

- 19** ㉠의 앞부분에서는 세계화된 세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의 차이를 무시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 뒷부분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권 시장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앞뒤의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예를 들어)’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 2. 마음을 담은 언어

### [1] 배려하며 말하기

#### ● 확인 문제

본문 37~40쪽 ●

01 ④ 02 ③ 03 야, 이 한심한 새끼야. 04 ① 05 ④  
06 사내자식이 계집애처럼 앵앵대기는. 07 ② 08 ② 09 민하  
가 유진에게 치마가 낀다고 조롱하였기 때문이다. 10 ④ 11 터  
지고

- 01 희주는 태호, 민하와 함께 모두 발표를 망쳐서 속상한 마음에 씩씩거리고 있고, 속상한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하고 있다. 따라서 희주는 모두 발표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방과 후, 교실.’이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②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민우는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다.’를 통해 민우가 모두 발표를 망앓음을 알 수 있다.
- ③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모두 친구들만 교실에 남았다고 하였다.
- ⑤ ‘수행 평가에도 들어가잖아.’라는 희주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02 자료 정리는 유진이가 맡았는데 유진이는 제때 발표 자료를 민우에게 넘기지 못해서 준비할 시간을 허비했다고 자책하고 있다.

- 03 태호는 민우에게 ‘새끼’라는 비속어를 섞어서 민우의 능력에 대해 조롱하고 있다.

- 04 민우는 태호의 말을 듣고 ‘자료 정리를 얼른 넘겨줬으면 연습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며 유진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 05 태호는 유진의 표정을 보고 ‘나무늘보’라고 하며 외모를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다. 태호는 유진을 비꼬고 놀리기 위해 ㉠과 같이 말한 것이다.

- 06 태호는 민우에게 ‘사내자식이 계집애처럼 앵앵대기는.’이라며, 남녀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지고 성차별적인 말을 하고 있다.

- 07 태호는 민우의 키를 언급하며 외모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우를 배려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민우는 매점 가서 라면이나 먹자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 ③ 민우는 자신을 놀리는 태호 때문에 화가 나 있다.
- ④ 민하는 유진에게 게으르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한다며 조롱하고 있다.
- ⑤ 민하는 유진에게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한다.’라고 말하며 유진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다.

- 08 민우가 말을 별로 잘하지 못했다는 태호의 말은 있지만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말을 못한다는 태호의 말이나,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는 민우의 말을 통해 발표할 때 실수가 많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 ③ 태호는 민우에게 말도 잘하지 못했지만 발표 자세도 영 아니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발표 자세가 어색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 ④, ⑤ 발표 도중에 다시 하겠다고 말하는 등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 09 민하가 유진에게 ‘치마 끼는 거 안 보여?’라고 유진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유진이가 교복 재킷으로 허리 쪽을 가리게 되었다.

- 10 태호의 랩을 듣고 친구들 모두가 비웃자 유진이는 화난 표정으로 태호를 쨌려본다. 이로 보아 유진이가 화가 난 이유는 태호를 비롯한 친구들이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태호가 한 랩이 지루했다기보다 그 랩의 내용이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 화가 난 것이다.
- ② 자신을 게으르다고 말한 것은 태호이지, 유진이 본인이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 ③ 앞부분에서 유진이는 자신이 제때 발표 자료를 민우에게 넘겨주지 못해서 자책하였지만 이것이 유진이가 화난 이유는 될 수 없다.
- ⑤ 유진이의 이야기에 친구들이 정색을 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태호가 한 랩을 듣고 유진이가 정색하였다.

- 11 태호가 유진을 놀리며 사용한 비속어는 ‘개을러터지고, 썸한테 터지고, 우리한테 터지고’에 있는 ‘터지고’이다.

### 핵심 속

본문 38~40쪽

1 민우, 자책, 희주 2 계집애, 굴뚝이, 망한다 3 키, 치마 4 여자  
5 터지고

###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41~42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⑤

01 모둠 발표를 망친 이유는 자료 정리를 맡은 유진이가 발표자인 민우에게 자료를 늦게 넘기고, 민우는 충분히 연습을 하지 못한 채 발표를 하였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발표 내용이 어려웠는지는 알 수 없다.
- ③ 민우네 모둠이 발표를 망쳐서 다른 모둠이 상대적으로 잘하게 된 것이다. ③은 모둠 발표를 망친 결과에 해당한다.
- ④ 청중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다.
- ⑤ 발표자는 민우로 중간에 바뀌지 않았다.

02 민우는 모둠 발표를 망친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아닌 유진이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희주는 수행 평가를 망쳤다고 속상해하고 있다.
- ② 태호는 민우와 유진이에게 비속어를 쓰는 등 거친 말투로 대화하고 있다.
- ③ 민하는 유진이의 미래를 저주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등 심한 말을 하고 있다.
- ④ 유진이는 민하와 태호가 자신을 놀리고 비아냥거리자 화가 났다.

03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미래가 망할 거라며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욕설 표현은 찾아 볼 수 없다.
- ③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은 찾아 볼 수 없다.
- ④ 고정 관념을 갖고 한 말이 아니다.
- ⑤ 성이나 인종 등에 대한 차별적인 말은 아니다.

04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할 때에는 책임을 묻기보다는 문제 상황의 사정을 살피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며 공감하는 표현을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잘 살펴봐야 한다.

- ② 문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위로해 준다.
- ③ 상투적인 배려 표현을 쓰기보다는 어떤 문제 상황인지 그 사정을 잘 살펴서 그에 가장 알맞은 표현을 써야 한다.
- ④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생각하며 공감하는 말을 해야 한다.

### 소단원 핵심 정리

본문 43쪽

1 언어폭력 2 유진 3 외모 4 희주 5 미래 6 비속어

###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44~45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① 05 ⑤ 06 예이, 우유 먹고 키 더 커야 하는 거 아니냐?

01 민우는 유진이에게 원망하는 말투로 자료 정리를 열른 해서 넘겨줬으면 연습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로 보아 민우는 발표를 망친 책임을 유진이에게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자료 정리를 맡은 사람은 유진이다.
- ② 모둠 발표를 맡은 사람은 민우이다.
- ④ 친구의 성격에 대해 비아냥거린 사람은 민하이다.
- ⑤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태호이다.

02 '멋쩍다'는 어색하고 축스럽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자책하다'는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하다는 의미이다.
- ③ '질책하다'는 꾸짖어 나무라다는 의미이다.
- ④ '민폐'는 어떤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으로 민간에 끼치는 폐해를 의미한다.
- ⑤ '통명스럽다'는 못마땅하여 말이나 태도에 무뎡뎡한 기색이 있다는 의미이다.

03 ㉠에서 태호는 민우에게 '새끼'라는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저 나무늘보 같은 표정 좀 바라.'와 같은 표현이 외모를 비하하는 것에 해당한다.
- ③ '사내자식이 계집애처럼 앵앵대기는.'과 같은 표현이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
- ④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앞으로 말하는 직업은 좀 피해라.',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한다.'와 같은 표현이 저주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04** 모두 친구들이 유진이를 빈정거리며 놀리고 있고, 태호의 말에 친구들이 모두 비웃고 있기 때문에 유진이는 상처를 받고 화가 날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②, ③, ④ 친구들이 놀리고 비웃는 상황에서 ‘기쁘다, 감격하다, 고마워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  
⑤ ‘시큰둥하다’는 달갑지 아니하거나 못마땅하여 시들하다는 의미로 유진이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05** ㉠은 ‘터지고’라는 비속어를 섞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언어 표현이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표현은 ㉡이다. ㉡에서는 ‘사내자식’, ‘계집애’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여자는 어떠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표현한 말이다.  
② 상대방의 미래가 망할 거라며 저주하고 있는 부정적인 언어 표현이다.  
③ 상대방의 표정을 조롱하고 있는 말이다.  
④ 상대방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언어 표현이다.

**06** ‘에이, 우유 먹고 키 더 커야 하는 거 아니냐?’는 키가 작다며 태호가 민우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이다.

**소단원 고난도 문제**

본문 46~47쪽

**01** ④ **02** ② **03** ④ **04** 오늘은 평소와 달리 떠는 것 같던데, 컨디션이 안 좋았니? 연습을 많이 못 해 당황했을 거야. 오늘 많이 힘들었지? **05** ④ **06** ⑤

**01** ㉠ 희주는 직접 욕을 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유진이는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느긋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태호는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성격이고, 민하는 직선적이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민우 - 태호’, ‘유진 - 태호·민하’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일상 대화에서 공격적인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2** ‘우리 잘할 수 있었는데…….’는 발표를 망쳐 속상함을 표현하는 말이지 <보기>에 해당하는 표현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능력이나 성품에 대해 함부로 단정을 하는 표현이다.

③ 상대방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말하며 저주하는 표현이다.

④ 상대방의 외모나 능력 등에 대해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이다.

⑤ 비속어를 사용하여 비난하는 표현이다.

**03** 느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은 민우가 아니라 유진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우유 먹고 키 더 커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생각할 수 있다.  
② 발표를 제대로 못하고, 말하는 직업은 피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감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므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③ 태호가 ‘이 한심한 새끼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느낄 수 있다.  
⑤ 발표 자료를 늦게 받아서 발표를 제대로 못했고, 유진에게 ‘내가 자료 정리 좀 얼른 해서 넘겨줬으면 연습할 시간도 있었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

**04** ‘평소에 잘하다 대체 왜 그래?’는 민우를 걱정하고 민우의 상태와 기분을 살피는 내용을 포함하여 ‘오늘은 평소와 달리 떠는 것 같던데, 컨디션이 안 좋았니?’와 같이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연습 좀 하지. 중간에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떡해?’는 민우의 상태와 기분을 살피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습을 많이 못 해 당황했을 거야. 오늘 많이 힘들었지?’로 바꿀 수 있다.

**05** ㉠은 상대방을 단정하며 판단하는 말이다. ㉣ 역시 듣는 상대방에게 게으르다고 단정하며 판단하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 ①, ③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이다.  
② 상대방의 앞날을 부정적으로 보고 저주하는 말이다.  
⑤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는 말이다.

**06** ㉠은 외모를 비하하고, 여자는 어떠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차별하는 말에 해당한다. ㉡는 얼굴이 까맣다고 외모를 비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종 차별적인 표현이 들어 있는 문장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염병’은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은 비속어를 섞어서 비난하는 말이다.  
② 상대방의 상태, 성격을 단정하며 판단하는 말이다.  
③, ④ 상대방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말이다.

## [2] 어휘의 세계

### ● 확인 문제

본문 49~53쪽 ●

01 ③ 02 ③ 03 국어의 어휘들이 어떤 양상으로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04 ① 05 ② 06 ⑤ 07 ③ 08 ⑤ 09 중부 방언 10 유대감, 친밀감 11 ③ 12 ① 13 은어 14 ④ 15 ⑤ 16 비밀 유지라는 은어 사용의 목적에서 벗어나 더 이상 은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01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단어들끼리 묶인 단어의 집합을 어휘라고 한다.

02 수많은 단어를 적절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난 다음에 얻은 질서 잡힌 결과를 어휘의 체계라고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
- ②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함.
- ④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 ⑤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03 어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국어의 어휘들이 어떤 양상으로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04 '부스럭'은 '마른 잎이나 검불, 종이 따위를 밟거나 건드릴 때 나는 소리.'라는 의미를 지닌 소리를 나타내는 고유어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퍼렇다'는 '다소 탁하고 어둡게 푸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빛깔을 나타내는 고유어이다.
- ③ '뒤뚱뒤뚱'은 '크고 묵직한 물체나 몸이 중심을 잃고 가볍게 이리저리 기울어지며 자꾸 흔들리는 모양.'이라는 의미를 지닌 모양을 나타내는 고유어이다.
- ④ '살금살금'은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치를 살펴가면서 살며시 행동하는 모양.'이라는 의미를 지닌 모양을 나타내는 고유어이다.
- ⑤ '펼쩍펼쩍'은 '매우 급히 힘 있게 자꾸 날아오르거나 뛰어오르는 모양.'이라는 의미를 지닌 모양을 나타내는 고유어이다.

05 '친구'는 '親舊'로 쓸 수 있는 한자어이다. '친구'는 '가깝게 오래 사귀 사람.'을 뜻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④ '버스'와 '라디오'는 외래어이다.
- ③ '하나'는 숫자를 셀 때 쓰는 고유어이다.
- ⑤ '시뻘꺠다'는 빛깔을 나타내는 고유어이다.

06 외래어는 기원에 따라 분류한 어휘 중 하나로 다른 나라 말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글자마다 뜻이 있는 것은 한자어의 특징이다.
- ②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은 한자어이다.
- ③ 개념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기에 좋은 말은 한자어이다.
- ④ 빛깔을 나타내는 표현이 풍부하다는 것은 고유어의 특징이다.

07 통일된 우리말 표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지역 방언이 아닌 표준어이다.

08 '부추'는 경상도 지방에서 '정구지'나 '소풀'로 불린다.

### 오답 피하기

- ① 전라도 지방의 방언이다.
- ② 충청도 지방의 방언이다.
- ③ 경기도나 강원도 지방에서 쓰는 말이다.
- ④ 강원도 지방의 방언이다.

09 우리말의 지역 방언은 크게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동남 방언, 서남 방언, 제주 방언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10 같은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서로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11 전문 분야에 속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전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전문어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2 탄산음료는 '이산화 탄소를 물에 녹여 만든, 맛이 산뜻하고 시원한 음료'라는 뜻으로 전문어가 아니다.

13 은어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비밀을 유지하려고 쓰는 말이다.

14 소를 사고팔 때 흥정을 붙이는 사람들이 쓰는 '저울'은 은어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사냥꾼들이 쓰는 '날치'는 은어의 한 예이다.
- ② 은어를 사용하면 그 뜻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전문어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가리켜야 하므로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였다.
- ⑤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면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15** 은어를 사용할 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  
 ② 안심이 되는 마음.  
 ③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④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느낌.

**16** 은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비밀 유지라는 은어 사용의 목적에서 벗어나 더 이상 은어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핵심 쏙**

본문 49~53쪽

- 1 공통, 분류 2 지역 3 고유어, 한자, 우리말 4 지역, 유대감  
 5 의미, 비밀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54쪽

- 01 ① 02 지역 방언 03 ③

**01** '선택'은 '選擇'으로 쓸 수 있는 한자어이다.

**오답 피하기**

- ② '처음'은 고유어이다.  
 ③ '헬스'는 'health'로 쓰며 외래어이다.  
 ④ '워밍업'은 'warming-up'으로 쓰며 외래어이다.  
 ⑤ '제자리'는 고유어이다.

**02**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한다.

**03** '해일'은 전문어이다. 뜻을 아는 사람끼리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은어의 특징이다.



**소단원 핵심 정리**

본문 55쪽

- ① 체계 ② 예 ③ 순우리말 ④ 한자 ⑤ 우리말 ⑥ 친밀감  
 ⑦ 표준어 ⑧ 비밀 ⑨ 소속감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56~57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⑤ 05 ④ 06 전문어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고, 은어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비밀을 유지하려고 쓰는 말이다. 이 두 어휘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쓴다는 공통점이 있다.

**01** 고유어는 '하나, 둘'이나 '엄마, 아빠'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한다.

**오답 피하기**

- ① 글자마다 뜻이 있는 것은 한자어의 특징이다.  
 ②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문어이다.  
 ③ 개념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자어의 특징이다.  
 ⑤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은 외래어이다.

**02** '버스(bus)'와 '카페(café)'는 모두 외래어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감'은 고유어이고, '강(江)'은 한자어이다.  
 ② '산(山)'은 한자어이고, '하나'는 고유어이다.  
 ④ '엄마'는 고유어이고, '친구(親舊)'는 한자어이다.  
 ⑤ '반짝'은 고유어이고, '라디오(radio)'는 외래어이다.

**03** '처음'은 고유어이고, ㉠~㉣은 모두 한자어이다.

**오답 피하기**

- ㉠'운동'은 '運動', ㉡'기구'는 '器具', ㉢'선택'은 '選擇', ㉣'사용'은 '使用'으로 쓸 수 있는 한자어이다.

**04** 유대감은 같은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끼리 느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지역 방언은 그 지역만의 정감을 드러낸다.  
 ② 요즘에는 학교 교육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각 지역에 표준어가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지역 방언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였다.  
 ③ 지역 방언은 그 지역만의 정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같은 지역 방언을 쓰면 친밀감을 느낀다.  
 ④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특정 지역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05** ㉠, ㉡은 은어의 예에 해당한다.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전문어이다.  
 ② 지역의 정감을 드러내는 어휘는 지역 방언이다.  
 ③ 은어를 통해 집단의 분위기를 알 수 없다.  
 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알리기에 적절한 것은 고유어이다.

- 06 전문어는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고, 은어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비밀을 유지하려고 쓰는 말이다. 이 두 어휘의 공통점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끼리 사용한다는 것이다.

## 소단원 고난도 문제

본문 58~59쪽

- 01 ④ 02 ① 03 ㉠과 같은 외래어는 '워밍업'과 '헬스'가 있다. 외래어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외국 문물과 함께 그 것을 가리키는 말도 함께 들어오면서 생긴 것이다. 04 ② 05 ⑤ 06 ②

- 01 우리말은 원래부터 우리가 써 오던 고유어,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한자어, 다른 나라 말에서 들어온 외래어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처음 생길 때의 기원이 다르다.

### 오답 피하기

- 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 하나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② '포도(葡萄)'처럼 한자어로 되어 있는 과일이 있다.  
③ 특정 어휘가 어떤 지역에서 사용되느냐, 어떤 집단에서 사용되느냐 등에 따라 어휘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⑤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단어들끼리 묶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묶인 단어의 집합을 어휘라고 한다고 하였다.

- 02 '책'은 '冊'으로 쓸 수 있는 한자어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땅'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고유어이다.  
③ '칼팔'은 소리를 나타내는 고유어이다.  
④ '시퍼렇다'는 빛깔을 나타내는 고유어이다.  
⑤ '엷금엷금'은 모양을 나타내는 고유어이다.

- 03 ㉠은 외래어로, <보기>에서는 '워밍업(warming-up)'과 '헬스(health)'가 외래어에 해당한다. 외래어는 외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외국 문물을 가리키는 말이 들어오면서 생겨났다.

- 04 ㉠, ㉡ '지역 방언은 그 지역만의 정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라는 부분을 통해 지역 방언만의 정감이 있고,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들을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특정 지역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대상을 지역마다 표현하는 말이 다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 학교 교육이나 대중 매체 등을 통해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은 표준어이다.  
㉡ 비밀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어휘는 은어이다.

- 05 '소금'과 '염화 나트륨'은 일상어와 전문어의 관계이다.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진 묶음은 '여드름'과 여드름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인 '좌창'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여섯'은 '6'을 가리키는 고유어, '육'은 '6'을 가리키는 한자어이다.  
② ' 으뜸'은 고유어, '최고'는 한자어에 해당한다.  
③ '대가리'는 사람의 머리를 속되게 표현하는 말이다.  
④ '정구지'는 '부추'의 방언이다.

- 06 은어를 사용할 때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뜻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오답 피하기

- ① 천박한 느낌을 주는 어휘는 비속어이다.  
③ 은어는 집단 사람들끼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어휘이기 때문에 사전에 찾아도 의미를 알 수 없다.  
④ 은어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비밀을 유지하려고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은어를 모르는 사람은 구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되도록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어가 사회 비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단원 종합 문제

본문 60~63쪽

- 01 ③ 02 ② 03 ㉠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 문장은 '게을러터지고, 뽀한테 터지고, 우리한테 터지고.'이다. 이 두 문장은 비속어를 섞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 04 ② 05 ③ 06 ③ 07 ④ 08 ③ 09 '포도'는 한자어이고, '오렌지'는 외래어이다. '포도'와 '오렌지'를 각각 다른 어휘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 단어들의 기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10 ⑤ 11 ④ 12 ⑤ 13 ① 14 ② 15 ③

- 01 민하는 유진에게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한다.'라는 상대방의 앞날을 부정적으로 보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유진의 앞날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유진은 계속 질책하는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친구들을 썰렁해하거나, 화난 표정을 짓는다.

- ② 태호는 ‘한심한 새끼야.’나 ‘사내자식이 계집애처럼 엉엉대기는.’ 등과 같은 거친 말투를 사용하여, 모두 발표를 맡은 민우에게 짜증을 내고 있다.
- ④ ‘(속상한 표정으로)’를 통해 희주는 모두 발표를 망쳐 속상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민우는 유진에게 ‘네가 자료 정리 좀 얼른 해서 넘겨줬으면 연습할 시간도 있었잖아.’라고 하며 모두 발표를 망친 책임을 유진에게 넘기고 있다.

**02**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헐박 따위를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폭력’이다. 언어폭력과 대조적인 말하기는 ‘배려하며 말하기’이다. 배려하며 말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03** ㉞는 비속어를 섞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말이다. (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문장은 ‘게을러터지고, 썸한테 터지고, 우리한테 터지고.’이다.

**04** ‘치마 끼는 거 안 보여? 여자가 몸매 관리 좀 해라.’는 외모를 조롱하고, 여자는 어떡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차별한 말이다.

**05** ‘콧방귀 뀌다’의 의미는 ‘아니꼽거나 못마땅하여 남의 말을 들은 채 만 체 말대꾸를 아니하다.’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영’은 ‘전혀, 도무지.’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이다.
- ② ‘비아냥거리다’는 ‘얕밟게 빈정거리며 자꾸 놀리다.’라는 의미를 가졌다.
- ④ ‘터지다’는 ‘언어맞거나 매를 맞다.’를 속되게 표현한 말이다.
- ⑤ ‘정색’은 얼굴에 엄정한 빛을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06** 원래부터 우리가 써 오던 순우리말은 ‘고유어’이고,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은 ‘한자어’이다. ‘외래어’는 다른 나라 말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전문어’는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다. ‘관용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07**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풍부한 것은 고유어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한자어는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한자로 쓸 수 있다.

- ② 한자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쓰였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한자어가 많다.
- ③ 한자는 글자마다 뜻이 있어서 개념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좋다.
- 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쓰였기 때문에 ‘산, 강, 책, 친구’처럼 한자어라고 느끼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다.

**08** ㉠ ‘형(兄)’은 한자어, ‘아우’는 고유어이다. ㉡ ‘사람’은 고유어, ‘여자(女子)’는 한자어이다.

**오답 피하기**

- ㉠ ‘발’과 ‘손’은 고유어이다.
- ㉡ ‘거북’과 ‘토끼’는 고유어이다.
- ㉢ ‘동물(動物)’과 ‘식물(植物)’은 한자로 쓸 수 있는 한자어이다.

**09** ‘포도’는 ‘葡萄’로 쓸 수 있는 한자어이고, ‘오렌지’는 ‘orange’로 쓸 수 있는 외래어이다. 이들은 한자어와 외래어로 기원이 다른 단어이다.

**10** 학교 교육을 통해 많이 보급되는 것은 표준어이다.

**오답 피하기**

- ① ‘호우 주의보’는 기상 예보에서 쓰는 전문어이다.
- ② 전문어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가리켜야 한다.
- ③ 지역 방언은 그 지역만의 정감을 드러낸다.
- ④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쓰는 말에는 전문어와 은어가 있다.

**11** 제시된 그림은 지역 방언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대상인 ‘부추’를 지역에 따라 ‘분추, 정구지, 술’ 등과 같이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지역 방언을 통해 지역 주민의 지식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
- ② 같은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끼리 유대감을 느낄 수 있으나, 이 그림을 통해 유대감 정도를 알 수 없다.
- ③ 지역 방언 사용을 통해 지역끼리 갈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 ④ 표준어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림이 아니다. 오히려 아직까지 지역에서 방언을 쓰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림이다.

**12** ‘몸짱’은 몸매가 아주 늘씬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전문어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미장센’은 ‘무대 위의 등장인물의 배치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등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을 뜻하는 영화 용어이다.
- ② ‘기소’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법률 용어이다.
- ③ ‘식물인간’은 ‘대뇌의 손상으로 의식과 운동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호흡과 소화, 흡수, 순환 등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는 환자.’를 뜻하는 의학 용어이다.
- ④ ‘데드 볼’은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의 몸에 닿는 일.’을 뜻하는 운동 용어이다.

**13** 은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집단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② 은어는 특정 집단 사람들이 비밀을 유지하려고 쓰는 말이다.
- ③ 사용하는 은어의 뜻을 아는 집단 사람들끼리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 ④ 은어를 사용하는 집단 외의 사람은 은어를 듣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 ⑤ 비밀 유지라는 사용 목적이 없어지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4** ㉠ 지역 방언은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는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지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지역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지역 방언, 전문어, 은어 등의 어휘들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답 피하기**

- ① 전문어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는 전문어보다는 일상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②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 방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15** 앞부분에서 지역 방언, 전문어, 은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어휘를 지역이나 집단에 따라 나눈 것으로 어휘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이 글은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어휘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 ② 소멸된 어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④ 어휘의 세계화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 ⑤ 어휘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실전 중간고사**

본문 64~69쪽

**01** ⑤ **02** 말하는 이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있는데, 자신의 머리를 다듬는 가위를 나비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나비가 날아드는 자신을 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03** ⑤ **04** ③ **05** ③ **06** ④ **07** (1) 새로운 길 (2) 말하는 이가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08** ④ **09** ④ **10** ⑤ **11** ② **12** ① **13** ③ **14** 정확한 시간을 잴 수 있는 시계보다 자연 현상이나 신체 현상 등을 바탕으로 시간을 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글쓴이의 의도를 담고 있다. **15** ③ **16** ⑤ **17** ② **18** ② **19** 유진아, 팬텀아. 너도 혼자 발표 정리하느라 힘들었을 거야. **20** ① **21** ② **22** 고유어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외래어나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쓰지 말아야 해. **23** ② **24** ④ **25** ①

**01** 미용실에서 ‘은빛 가위’로 머리를 다듬고 있는 상황을 마치 ‘은빛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끼고 있으며, 가위질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와 나비의 움직임을 흉내 낸 의태어를 사용해 경쾌하고 밝고 환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나’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02** 말하는 이는 지금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있는데, 미용실 누나의 은빛 가위를 보며 마치 은빛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은빛 나비가 날아드는 자신의 머리는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03** 이 시의 5~6연에 사용된 비유법은 ‘은유법’이므로 ‘당신’을 ‘번데기’에 비유한 ⑤가 답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표현이다.
- ② 인생이 웃는다고 하여 의인법을 사용하였다.
- ③ ‘좋은’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 ④ ‘처럼’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한 표현이다.

**04** ‘팔랑팔랑’, ‘폴폴’, ‘살랑살랑’은 모두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의태어이고, ‘사각사각’은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다.

**05** 이 시에서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④ 이 시는 첫 연을 끝 연에서 반복하며 말하는 이의 의지를 드러내며, 문장을 끝맺지 않은 채 시를 마쳐서 여운을 준다.
- ②, ⑤ ‘갈’, ‘길’에서 자음 ‘ㄹ’을 사용하였고, ‘~로’, ‘~고’와 같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6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은 말하는 이가 인생의 길에서 스치듯 만나는 대상일 뿐이다.

07 이 시에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하는 이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

08 독자가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면 모호한 개념이나 글에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떠올리며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을 예측할 때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다.

09 ‘시계, 도덕 선생님이 되다’라는 소제목은 시계가 도덕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왜 도덕 선생님의 시계가 정확한가’라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10 ‘태엽으로 가는 시계는 열이면 열, 조금씩 다르게 재깍거렸다’는 말에서 태엽 시계도 같은 시간을 나타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가)의 끝부분에서는 그전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맞추었는지, 철도는 어떻게 온 세상의 시간을 하나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가)의 뒤에는 철도가 등장하면서 시간이 통일된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 오답 피하기

⑤ 정확한 시간을 모르던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에서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이다.

12 정오는 낮 12시를 뜻하는 말이므로 정확한 시간을 표현한 것이다.

13 옛날 사람들은 마을마다 도시마다 시간이 제각각이어도 따로따로 살아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14 글쓴이는 시계로 시간을 재는 것보다 일어나는 일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시간을 재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15 이 대화에 등장하는 모둠원들은 모두 유진이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말로 상처를 주고 있다. 회주 역시 공격적인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유진이를 생각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16 태호는 발표자인 민우에게 말을 못한다고 공격적인 표현을 써서 비난하였고, 또한 유진이를 ‘나무늘보’, ‘곰뱅이’로 표현해 비하하고 있다.

17 민하는 유진이의 인격을 비하하며 공격적인 말로 상처를 주고 있으므로 ②와 같은 충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8 민우는 발표를 망친 것을 유진이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태호의 말에 미안한 표정을 짓지 않을 것이다. ㉠에는 ‘멋쩍은(어색하고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어울린다.

19 민우는 자책하는 유진이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해야 한다.

20 한자어나 외래어 역시 우리말 어휘에 속하는 말이며,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조화롭게 쓰여 우리말 표현을 풍부하게 해 준다.

#### 오답 피하기

② ‘산’, ‘강’, ‘책’, ‘친구’처럼 우리가 한자어라고 느끼지 못하고 쓰는 어휘도 많다고 하였다.

④ ‘카페’나 ‘아르바이트’처럼 프랑스어나 독일어에서 온 외래어도 있다고 하였다.

21 <보기>는 고유어의 특징과 관련 있는 글로서, 우리말이 소리나 모양, 빛깔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설명하고 있는 (나)의 뒤에 들어가야 한다.

22 <보기>에서는 ‘바젠세일’, ‘엣지’, ‘브런치’, ‘갈릭브레드’, ‘스커트’, ‘레인부츠’와 같은 외래어나 외국어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다.

23 공적인 상황에서는 지역 방언보다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방언은 ②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4 관광 안내판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삭제하면 통영 사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내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25 전문어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가리켜야 하므로,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

#### 오답 피하기

② 의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이다.

③ 전문어는 개념을 명확하게 가리켜야 한다고 하였다.

④, ⑤ 전문어를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 3. 나는 날마다 자란다

#### [1] 성장과 성찰

##### ● 확인 문제

본문 73~85쪽

01 ④ 02 ⑤ 03 '나'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사춘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04 ④ 05 ④ 06 하루 종일 돈만 세고 왔다는 엄마의 말에서 엄마가 은행원임을 추측할 수 있다. 07 ④ 08 ② 09 모범생은 '나', 즉 주인공인 예린이를 뜻한다. '나'는 어른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모범생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10 ② 11 ⑤ 12 '그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 독자에게 호기심을 유발한다. 13 ④ 14 ② 15 ⑤ 16 ③ 17 ③ 18 윤선이는 '나'의 위층에 사는 연호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19 ④ 20 ① 21 '나'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머리를 염색해서 22 ⑤ 23 엄마의 삶을 부정하는 '나'의 말에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 슬펐을 것이다. 24 ②, ⑤ 25 ② 26 ④ 27 ⑤ 28 ① 29 ⑤ 30 ④ 31 ② 32 ④ 33 사과가 충분히 익어야 달고 맛있듯이, 사람도 오랜 시간을 거쳐 많은 경험을 해야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4 ⑤ 35 ③ 36 ⑤ 37 ③ 38 ③ 39 이중창

01 소설에서는 말과 행동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인물들이 서로 갈등을 겪으며 사건이 전개된다.

##### 오답 피하기

- ① 운율이 중심이 되는 것은 운문 갈래이다.
- ② 기록에 의의를 두는 것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을 두는 기사나 기록문의 특징에 가깝다.
- ③ 소설의 서술자는 작가와 동일 인물이 아니다. 소설의 인물들은 작가가 창조해 낸 가상의 인물이다.
- ⑤ 자신이 겪은 일에 관해 쓰는 것은 수필에 가깝다. 소설의 작가 역시 자신이 겪은 일을 소설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본인의 경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2 '나'는 엄마가 '나'의 방문을 열고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고 있었다. 잔소리가 듣기 싫고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나'에게 언니가 있다는 내용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 ② 방문이 고장 났다는 정보는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 ③ 음악을 크게 듣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 ④ 수학 숙제에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다.

03 엄마는 '나'가 사춘기가 되어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엄마는 '나'에게 '춘기'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04 엄마는 자신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나'가 학생의 본분을 다 하길 바란다. 그러나 '나'는 공부에 큰 관심이 없고 멋내기에만 관심이 있다. 그로 인해 '나'와 엄마 사이에는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난다.

##### 오답 피하기

- ① 엄마는 퇴근 후에 운동을 하지만 '나'가 운동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등장하지 않는다.
- ② 엄마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식성과 '나'의 식성은 조금 다르다. 그러나 그것이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 ③ 엄마는 자신과 함께 영어 학원에 가자고 '나'에게 말한 적이 없다.
- ⑤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05 발단 단계에서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각자의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 또한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들과 소설의 배경이 등장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등장할 수는 있으나 본격적으로 심화되는 단계는 아니다.
- ② 독자에게 감동과 후련함을 주는 것은 이야기의 결말 부분이다.
- ③ 인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은 소설의 절정 단계에 해당된다.
- 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갈등이 해결되는 부분은 소설의 결말이다.

06 허공을 두드리는 엄마의 손놀림이나, 하루 종일 돈만 세고 왔다는 말에서 엄마가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07 모범생과 문제아에 대해 '나'는 애들이 모두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른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영어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다.
- ② 엄마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며 그것이 재미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③ 중학교 공부가 중요하니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엄마이다.
- ⑤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가면을 쓴 학생들의 속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08** ‘나’는 엄마가 원하는 공부보다 ‘어른 흉내 내기’, 즉 어른들처럼 멋을 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어른들 앞에서 모범생인 척하는 가면을 쓰지만 그것이 어른 흉내 내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③ 홀로 독립해서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등장하지 않는다.
- ④ ‘나’는 모범생인 척하고 있다.
- ⑤ ‘나’가 생각하는 심오한 학문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어른들처럼 멋을 내는 것을 뜻한다.

**09** ‘나’는 어른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모범생 노릇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가리켜 모범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10** ‘나’는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자란 적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를 떠올리면 어린 시절이 함께 생각난다.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할머니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할머니가 집에 오는 것이 싫지 않다.
- ③ 할머니는 엄마처럼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는다.
- ④ 할머니는 ‘나’를 외롭고 지치게 만들지 않는다.
- ⑤ 할머니는 엄마 편만 듣기보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11** ‘나’는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낯선 피자 배달원이 왔을 때 집에 아빠가 있는 척 연기를 했다.

**오답 피하기**

- ① ‘나’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아빠를 부른 이유는 아니다.
- ② 혼자 밥을 먹는 게 쓸쓸한 것이 아빠를 부른 이유는 아니다.
- ③ 아빠는 해외 취재를 위해 출장을 갔기 때문에 ‘나’가 부른다고 같이 피자를 먹을 수는 없다.
- ④ 엄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멀리 있는 아빠가 지금 ‘나’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

**12** 윤선이에게 보내는 문자에서 ‘그거’라는 말을 사용하여 같이 하고자 하는 일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그거’는 머리 염색이다.

**13** ‘나’가 생각하는 ‘어른 흉내 내기’는 어른들처럼 멋을 내는 것과 어른들에게 간섭 받지 않는 것이다. 엄마의 샌들을 신고 나가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수업 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른 흉내 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계단에서 큰 소리로 웃은 것은 윤선이가 위층에 사는 연호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어른 흉내 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여기서의 휴게실은 화장실을 의미하며,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 어른 흉내 내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가는 것을 어른 흉내 내기로 보기는 어렵다.

**14** 소설에서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은 전개 단계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발단: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고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 ③ 위기: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긴장감이 느껴진다.
- ④ 절정: 갈등과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 ⑤ 결말: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해결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15** ‘나’와 윤선이는 어른들 몰래 머리를 염색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학교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서 둘의 공통된 심리 상태인지 알 수 없다.
- ② 현재 엄마와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나’이며, 윤선이도 그러한지는 알 수 없다.
- ③ 할머니에 대한 윤선이의 감정은 등장하지 않는다.
- ④ ‘나’의 아파트에 사는 연호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연호를 좋아하는 윤선이다.

**16** ‘나’와 윤선이가 남자 친구와 함께 노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나’와 윤선이는 어른들 몰래 머리를 염색하기 위해 ‘나’의 집으로 왔다.
- ② ‘나’의 집에서 둘은 함께 공포 영화 비디오를 빌려서 본 적이 있다.
- ④ ‘나’와 윤선이는 우리 집에서 떡볶이와 라면을 함께 끓여 먹은 적이 있다.
- ⑤ 머리를 염색하는 동안 둘은 커피를 마시며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다.

17 '나'는 어른들처럼 자유롭게 멋을 내고 꾸미고 싶어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어른들 앞에서 모범생인 척하는 가면을 쓰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 ② 일상이 지루하고 심심한 이유 때문에 염색을 한 것은 아니다.
- ④ 원래 머리 색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다.
- ⑤ 머리 염색에 관해 다른 사람이 조언해 주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18 윤선이는 '나'의 위층에 사는 연호를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위층에서 소리가 나면 그것에 관해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다.

19 '나'는 엄마 몰래 윤선이와 머리 염색을 했다. 엄마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에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동안 두려워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염색을 하는 동안에는 즐거웠으나 끝나고 나니 두려운 마음이 든 상태이다.
- ② 윤선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므로 허전해하거나 외로워하지 않는다.
- ③ 속상해서 눈물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 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지 않다.

20 윤선이가 '나'를 질투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② '나'는 설명서를 읽고 차근차근 염색을 하는 과정을 재미있어 하고 있다.
- ③ 집에 돌아온 엄마는 '나'의 머리를 보고 놀랐다.
- ④ '나'는 집에 돌아온 엄마가 '나'의 머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긴장을 하고 있다.
- ⑤ '나'는 거울을 보며 갈색 머리를 닦설어 하였다.

21 엄마는 '나'가 학생다운 모습으로 지내길 바란다. 따라서 '나'가 엄마와 미리 상의도 없이 머리를 염색한 것에 대해 화가 났다.

22 '나'는 머리 염색에 대해 화를 내던 엄마가 휴대 전화도 압수하겠다는 말을 하자 화를 내기 시작한다.

**오답 피하기**

- 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 ②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지 않다.

③ 같이 염색한 윤선이가 엄마에게 혼이 났는지 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④ 용돈을 더 받고 싶어 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23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말은 곧 엄마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엄마는 '나'의 말에 화가 나고 슬펐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24 '낯선 애'는 거울 속 갈색 머리, 즉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 = 예린이를 가리킨다.

**오답 피하기**

- ① 거울을 보고 있으므로 대상은 엄마가 아니라 본인이다.
- ③ 외할머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 ④ 피자 배달원과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25 소설 속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외적 갈등이라 한다. 외적 갈등에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인물과 그를 둘러싼 사회와의 갈등도 포함된다.

**오답 피하기**

- ① 한 인물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 한다.
- ③ 필연적 갈등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타고난 운명과 인물의 갈등 역시 큰 갈래로 외적 갈등에 포함된다.
- ⑤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은 외적 갈등에 포함된다.

26 조금 전까지 엄마와 화를 내며 다투던 '나'는 할머니를 보자 반색하며 반긴다.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아 할머니에게 친숙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 할머니는 엄마처럼 '나'에게 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엄마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 ② '나'는 할머니를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③ 할머니는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 ⑤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는 구체적인 갈등이 등장하지 않는다.

27 엄마는 '나'의 머리를 진심으로 '멋진 머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행동을 비꼬기 위해 '멋진 머리'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오답 피하기**

- ① 엄마가 할머니에게 한 말이다.
- ② 엄마는 자신이 보기에 못마땅한 머리를 '멋진 머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예린이를 비꼬고 있다.

- ③ '저 멋진 머리 좀 봐.'에서 '멋진 머리'는 예린이가 친구 윤선이와 함께 염색한 머리이다.
- ④ 엄마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고, 예린이를 비꼬는 듯한 표현이므로 이 대사는 못마땅한 말투가 어울린다.

**28** 할머니는 머리 염색을 한 '나'를 보고 엄마처럼 야단치는 대신 영리하고 손재주가 있다며 칭찬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학생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나무라는 것은 엄마이다.
- ③ 할머니는 '나'의 텔레비전 시청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 ④ 할머니는 '나'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 ⑤ 엄마에게 대드는 점을 지적한 적은 없다.

**29** 엄마는 공부만 했다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예로 들며 학생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나'를 혼냈다. 그러다 할머니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몇 내던 이야기를 하니 더 이상 '나'를 혼내기가 머쓱해졌다.

**오답 피하기**

- ① 할머니가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혼낼 수가 없었다.
- ② 저녁을 먹고 싶지 않아 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 ③ 청소년이 들으면 안 되는 잔인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 ④ '나'가 할머니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다.

**30** '나'는 엄마가 잠든 후에, 아까 할머니가 이야기를 꺼내다 말았던 엄마의 어린 시절에 관해 듣고 싶어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당장 집을 나가려고 계획 중인 것은 아니다.
- ② 엄마가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 ③ 엄마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는 아니다.
- ⑤ 엄마가 가져간 휴대 전화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31** 할머니에게 들은 엄마의 이야기는 '나'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달랐다. 엄마는 공부에만 열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처럼 멋을 내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엄마는 파마한다고 연탄집게로 머리를 태워 먹은 적이 있다.
- ③ 엄마는 남학생들과 어울려 함께 놀러 다닌 적이 있다.
- ④ 엄마는 할머니에게 애교를 잘 부리는 딸이었다.
- ⑤ 할머니는 엄마 때문에 학교에 불려 간 적이 있다.

**32** 최고조에 달한 갈등이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은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절정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발단: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고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 ② 전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된다.
- ③ 위기: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긴장감이 느껴진다.
- ⑤ 결말: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해결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33** 오랫동안 과수원을 한 할머니는 사과와 인간의 성숙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해와 비와 바람을 모두 거친 사과가 잘 익는 것처럼, 인간 역시 오랜 시간을 거쳐 많은 경험을 두루 해야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4** 엄마에게 지금의 자신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웃음이 났다. 그리고 집을 나가지 않기로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지 않았다.
- ② 엄마의 코 고는 소리를 웃겨 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 ③ '나'는 속상하거나 허탈해하고 있지 않다.
- ④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엄마의 어린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다.

**35** 할머니가 집에 머문 닷새 동안 엄마와 할머니는 서로를 잘 챙겨 준다. '나'는 그것을 보며 모녀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오답 피하기**

- ①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있는 관계이다.
- ② 서로를 위해 챙겨 주고 있다.
- ④ 할머니는 엄마에게 요리를 만들어 주고, 엄마는 할머니에게 염색을 해 주고 옷을 사 주었다.
- ⑤ '나'는 엄마가 할머니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것을 보며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36**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는 이제껏 일어났던 사건들이 마무리된다.

**오답 피하기**

- ①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전개에 해당한다.
- ②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은 절정에 해당한다.
- ③ 중심이 되는 사건의 실마리가 등장하는 것은 발단에 해당한다.
- ④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발단에 해당한다.

**37**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 엄마는 ‘나’에게 공원에 가자고 한다. 그리고 ‘나’가 평소에 좋아하던 초록 껌을 내밀며 화해를 요청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엄마에게 껌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 ② 할머니는 ‘나’에게 껌을 주라고 한 적이 없다.
- ④ 엄마는 화가 풀렸기 때문에 ‘나’에게 공원에 가자고 말했다.
- ⑤ ‘나’가 다른 것을 먹지 못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38** 이 글은 가족 안에서 갈등을 겪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성장 소설이다. 독자는 이 글을 읽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은 중심 주제가 아니다.
- ② 중심 주제와 동떨어진 보편적인 말이다.
- ④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합이 중요한 사건이지, 친구와의 추억이 중심 내용은 아니다.
- ⑤ 단순히 모범적인 학생이 되자는 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다.

**39**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일을 뜻하는 단어는 ‘이중창’으로, 이 글에서는 ‘나’와 엄마가 화합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였다.

**핵심 쏙**

본문 73~85쪽

- 1 잔소리 2 중간고사 3 공부 4 모범생 5 어른 6 설레고
- 7 커피, 매니큐어 8 학생, 염색 9 외할머니 10 파마 11 어른
- 12 초록 껌, 갈등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86쪽

- 01 ④ 02 ⑤

**01** 이 소설은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와 엄마 사이의 갈등과 그로 인한 심리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02** 이 소설에서 엄마와 ‘나’는 가족이지만 서로 입장이 달라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원망하던 것을 벗어나, 엄마와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된다. 그러면서 점차 성숙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엄마와의 갈등을 겪고 성장한 ‘나’의 모습을 통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 ② 소셜 속 이야기에 공감하는 독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 ③ 가족 구성원이 갈등을 겪고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 ④ 소셜 속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후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소단원 핵심 정리**

본문 87쪽

- ① 성장 ② 1 ③ 갈등 ④ 엄마 ⑤ 피자 ⑥ 염색 ⑦ 외할머니
- ⑧ 딸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88~89쪽

- 01 ④ 02 엄마는 ‘나’가 자신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사춘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리듯이 चु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03 ②
- 04 ③ 05 ① 06 남학생들이랑 뽕집으로 들판으로 극장으로 쓰다니고, 할머니가 학교도 한번 불러 갔었던 일

**01** 어른들은 ‘나’가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공부보다 멋 내기와 같은 어른 흉내 내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오답 피하기**

- ① ‘나’가 친구 문제로 고민하는지는 알 수 없다.
- ② 엄마의 바람은 ‘나’의 바람과 다르다.
- ③ 담임 선생님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⑤ ‘나’는 아직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

**02** 엄마는 사춘기가 된 ‘나’가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자 이를 놀리는 별명으로 ‘나’를 चु기라고 부른다.

**03** ‘그거’는 ‘나’가 친구 윤선이와 함께 하기로 한 머리를 염색하는 일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윤선이에게 머리 염색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 ③ ‘나’는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 보고 싶어 한다. 머리 염색은 어른 흉내 내기와 관련이 있다.
- ④ ‘그거’라는 대명사를 사용해 독자에게 이어질 내용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 ⑤ 어른들이 없는 곳에서 머리 염색을 하기 위해 비어 있는 ‘나’의 집으로 갔다.

**04** 엄마는 처음에는 ‘나’의 머리를 다른 누가 염색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잠시 후, ‘나’ 스스로 원해서 했다는 것을 알고 화를 낸다. 윤선이가 시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윤선이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엄마가 염색약을 사다가 검게 물들이겠다고 하자 화가 나 가출을 생각한다.
- ② 할머니는 엄마와 달리 ‘나’의 머리 염색을 보고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을 했다.
- ④ 엄마는 늘 ‘나’에게 공부가 재미있고 늘 공부만 했다고 말했다.
- 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의 어린 시절과 지금의 ‘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서운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05** 엄마는 ‘나’의 염색한 머리를 진심으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비꼬기 위해 ‘멋진 머리’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오답 피하기**

- ②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나’의 머리 모양을 칭찬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다.
- ④ 무생물을 생명을 지닌 것에 비유하는 것은 활유법이다.
- ⑤ ‘나’의 머리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06** 할머니는 엄마가 잠든 사이 ‘나’에게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이야기 속의 엄마는 지금의 ‘나’처럼 멋 내기와 어른 흉내 내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소단원**  **고난도 문제**

본문 90~91쪽

**01 ⑤ 02 ② 03 ① 04 ⑤ 05 ③ 06 ③ 07** 사과가 해와 바람, 비와 이슬을 모두 맞으며 성장하듯이 사람 역시 시간을 두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성숙한 어른이 된다.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인 ‘나’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소설이다.

**02** 엄마는 ‘나’가 중학교에 들어갈 것을 대비해 미리미리 공부하길 바라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엄마는 직장에서 퇴근 후 영어 공부와 운동을 하는 바쁜 삶을 살지만 딸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지는 알 수 없다.

③ 엄마는 ‘나’의 인생을 생각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라고 있다.

④ 인성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⑤ 엄마는 ‘나’가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라고 있다.

**03** ①에는 펼쳐 내기 힘든 잠을 ‘꿈’의 속성에 비유하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에는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②, ③ ‘누님 같이’, ‘햇빛 같이’에서 보듯 ‘~같이’라는 직유법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④ ‘구름에 달 가듯이’에서 보듯 ‘~듯이’라는 직유법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⑤ ‘단풍잎 같은 가을’에서 보듯 ‘~같은’이라는 직유법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04** 한꺼번에 큰 소리로 웃는 것은 어른을 흉내 내는 일로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멋 내기’는 정확히 말해 ‘어른 흉내 내기’이다.
- ② 머리 물들이기는 어른 흉내를 내려고 ‘나’가 관심을 가지고 해 보려는 일이다.
- ③ 머리 염색이 다 되길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는 것은 ‘나’가 미용실에서 본 어른들의 모습이다.
- ④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은 어른들의 멋 내기를 흉내 내는 것이다.

**05** ‘나’는 엄마가 ‘나’의 핸드폰을 압수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고 억울해한다.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엄마가 놀라며 만류하자 다 듣지 못한 이야기에 대해 궁금함이 생긴다. 엄마가 잠이 들자 할머니에게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엄마의 어린 시절이 지금의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에 놀란다. 그리고 ‘나’와 엄마 사이에 동질감을 느끼고 엄마에게 화가 났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다.

**06** 엄마의 성장 과정에서 엄마가 머리를 염색하고 학교에 갔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할머니의 말에는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07** 할머니는 성급하게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나’에게 사과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과가 맛있게 잘 익으려면 햇빛과 바람과 비를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 역시 그러하다고 말한다. 즉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2]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글 쓰기

### ● 확인 문제

본문 93~96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머리를 잘라 달라진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변신'이라는 말로 시작해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06 ⑤ 07 ① 08 ③ 09 ⑤ 10 ④ 11 ⑤ 12 유명한 작가가 쓴 글이 아닌 또래 학생이 쓴 글을 함께 읽어 봄으로써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이다.

01 민준이와 은지는 생활 경험을 담은 글 쓰기 수업을 한다는 선생님의 말에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 글을 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글쓰기 수업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 ② 국어 수업이 지루하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이 쓴 글은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⑤ 하루하루가 똑같아서 글을 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02 11의 '나'는 영어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자신을 보고 웃은 이유를 자신이 잘생겼서라고 생각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미선이와 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② 영어 선생님이 잘생겼는지 알 수 없다.
- ③ 다른 친구의 외모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 ④ '나'가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 있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03 11에서 선생님과 갈등하고 있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영어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잘생겨서 친구들이 웃었을 것이라는 대목에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 ③ 수업 시간의 모습을 서술한 것으로 보아 학생이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 ⑤ 글쓴이가 겪은 일상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04 민준이는 11을 읽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글에 공감을 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글쓴이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 ② 이야기의 배경이나 규모가 압도당할 만큼 크지 않다.
- ④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았다.
- ⑤ 글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하지 않았다.

05 첫 문장에서 '변신'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06 듬뿍듬뿍 물을 주어서 머리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는 문장은 머리를 식물에 비유해 독자에게 웃음을 준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④ 비유를 사용해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이 없다.

07 2를 읽고 난 은지는 어렵다고 느끼던 글쓰기에 대해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된다.

#### 오답 피하기

- ② 머리를 계속 길러야겠다고 말하는 부분은 없다.
- ③ 글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④ 자신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직접 앞머리를 자르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 ⑤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08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희망이 자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풀'을 사왔다고 말했다.

#### 오답 피하기

- ① 교실이 허전해 보여 화초를 사 왔다고 말한 적은 없다.
- ② 학생들의 책임감을 키워 주려고 한다는 대목은 등장하지 않는다.
- ④ 화초는 실습에 사용하려는 목적과 관계가 없다.
- ⑤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화초를 사 오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09 글쓴이는 자신의 반에서 일어난 '풀'에 관한 경험을 자신의 생각과 더불어 서술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화초를 돌보는 방법을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 ② 반 친구들의 소홀함을 질타하는 대목은 등장하지 않는다.
- ③ 생명을 키우는 일의 엄숙함은 중심 주제가 아니다.
- ④ 담임 선생님을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10 글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것은 독서의 과정 중 '읽기 후'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민준이와 은지는 아직 글쓰기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다.
- ② 읽기 전 활동에는 작가에 대한 사전 조사, 제목을 보고 내용 추측하기, 목차 살펴보기 등이 있다.
- ③ 읽기 중 활동에는 마음에 드는 부분 밑줄 긋기, 메모하며 읽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 찾아보며 읽기 등이 있다.
- ⑤ 자료 조사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 11** 경험을 담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상의 경험들을 세심히 살피고 그중에서 쓰고 싶은 것을 골라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자신의 경험을 담은 글이므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자신의 글이므로 다른 사람의 문장을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자신의 경험을 담은 글이므로 다른 작가의 글을 참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반드시 특별하고 진귀한 경험만 글로 담을 필요는 없다.

- 12** 민준이와 은지는 글쓰기 수업을 하겠다는 선생님의 말에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한다. 그러나 선생님이 제시한 학생 글 세 편을 읽고 자신들도 이와 같이 글을 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핵심 쏙**

본문 93~96쪽

1 특별한 2 공감 3 변신, 흥미 4 담임 선생님 5 솔직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97~98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5 ①

- 01** ①~③은 일종의 수필로,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난 일과 느낌을 솔직하게 썼다.

- 02** 경험을 담은 글을 쓸 때에는 과장된 표현보다는 겪은 일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쓰는 것이 좋다.

**오답 피하기**

- ① 경험을 담은 글이므로 공간적 배경이 꼭 학교나 집일 필요는 없다.
- ② 결말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글이 주가 되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 ⑤ 부정적인 감정에 관한 글도 쓸 수 있다.

- 03** 자신의 지난 경험에서 글쓰기 소재를 찾기 위해서는 갈래를 나누어 경험을 떠올려 보면 좋다. 시간 순이나 특정 장소에 관한 기억을 소재로 삼으면 보다 실감나고 구체적인 글을 쓸 수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특이한 경험담을 찾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찾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 04**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독자와 자신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봐도 좋다. 또한 독자의 성향과 특성들을 파악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쓸 수 있다. 그러나 화려하고 거창한 꾸며 주는 말은 글을 감상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 05** 자신이 쓴 글을 친구와 바꿔 읽고 그에 대한 감상을 듣는 것은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된다. 비슷한 경험에 공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에 대해 조언을 받거나 새롭게 검토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독특한 경험을 베껴 쓰기 위해 친구의 글과 바꿔 읽는 것은 아니다.

**소단원 핵심 정리**

본문 99쪽

① 경험 ② 감동 ③ 잘생겨서 ④ 앞머리 ⑤ 성찰 ⑥ 간접 체험 ⑦ 경험 ⑧ 계획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00~101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④ 05 ④ 06 ⑤ 07 '풀'은 처음의 모습과는 다르게 시들시들 말라가기 시작했다.

- 01**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똑같아서 글로 쓸 만한 특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글쓰기를 어려워하고 있다.

- 02** (나)는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느낌과 함께 재미있게 쓴 글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영어 수업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글이 아니다.
- ②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오해를 풀기 위한 목적은 없다.
- ③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을 허구적으로 꾸며 낸 것은 소설의 특징이다.
- ⑤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목적의 글이 아니다.

- 03** 글쓰기 수업에 자신이 없던 민준이는 (나)를 읽고 자신도 그런 적이 있다며 글에 공감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은지는 점점 글쓰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고 있다.
- ③ 민준이가 국어 시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 ④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줄 과제를 수정하고 있지 않다.

⑤ 은지가 (나)에 등장하는 두 여학생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은 없다.

**04** 남북한 평화 모색에 대한 일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이 아니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험들이다.

**05** (나)의 경우 경험을 우스꽝스럽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학교라는 배경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 ②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 글을 쓴 자신이다.
- ③ 자신이 겪은 일상의 경험을 그리고 있다.
- ⑤ 비슷한 경험을 한 독자들은 글에 공감을 할 수 있다.

**06** ㉠은 <보기>의 글쓰기 전략 중 '경험을 충격적으로 제시하기'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전략이 쓰인 문장은 ⑤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 ② 질문 던지기 방법이다.
- ③, ④ 자신이 쓰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첫 문장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07** 글의 제목이 “풀과 우리 반의 짧은 만남”이고, ㉠의 앞부분에 아이들의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내용이 등장하므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는 풀이 시들거나 죽게 되었다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고난도 문제**

본문 102~103쪽

**01** ① **02** ⑤ **03** ① **04** ⑤ **05** 희망: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이 '풀'을 키우며 희망이 자라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06** ⑤

**01** (가)~(나)는 수필의 갈래에 해당하는 글로, 글쓴이가 자신이 겪은 일을 감상과 함께 서술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해 공통된 속성을 찾고 있지 않다.
- ③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 아니다.
- ④ (나)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졌다'와 같이 흥미를 높이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가)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⑤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뷰를 사용하지 않았다.

**02** (가)에서 '나'는 미선이와 정순이가 자신을 보고 웃는 이유가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게 자기도취에 빠지지 말라고 충고하는 말을 해 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나'의 경험과 생각을 썼지, 거짓말을 쓰지는 않았다.
- ② 영어 수업 중에 웃으며 공부해야 할 이유는 없다.
- ③ 자신도 꼭 따라서 웃어 주어야 하는 건 아니며, (가)의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멀다.
- ④ 미선이와 정순이가 웃는 이유는 선생님께 질문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03** 나쁜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엮힌 데 덮치다.'라고 한다. '나'는 실수로 머리를 짧게 잘라 속상한데 아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더욱 슬펐다.

**오답 피하기**

- ② 바늘이 가는 데 실이 항상 뒤따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일부만 보고 전체를 미루어 안다는 말이다.
- ④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다.
- 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4** 사실을 확인하며 신뢰성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수필의 읽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선생님이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화초를 가져왔으므로 이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다.
- ② 거금은 큰돈을 의미하므로 3,000원이란 액수를 과장하여 표현해 웃음을 준다.
- ③ 글쓴이의 반처럼 마스크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 ④ '풀'은 죽었지만 반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05**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자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서 '풀'을 사 왔다.

**06** 일상의 경험을 담은 글을 쓰기 위한 주제로는 '엄마의 생신을 기념해 미역국을 끓인 일'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과학 보고서의 주제로 적당하다.
- ② 독서 감상문이나 문학 평론의 주제로 적당하다.
- ③ 건의하는 글에 들어갈 주제로 적당하다.
- ④ 논설문이나 주장하는 글의 주제로 적당하다.



## 대단원 종합 문제

본문 104~107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③ 05 '나'는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섭다고 느낀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집에 낯선 피자 배달원이 오자, 집에 어른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 06 ③ 07 ③ 08 ④ 09 엄마에게도 지금의 '나'와 같은 시절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엄마와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10 ① 11 ③ 12 생활 경험을 담은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또래 학생이 쓴 글을 보여 줌으로써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이다.

01 '나'는 어른들 앞에서 모범생이라는 가면을 쓴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어른들을 대할 때 편하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엄마는 '나'를 '춘기'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
- ③ 엄마는 퇴근 후에 영어를 공부하고 운동도 다니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 ④ '나'와 엄마는 생각의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다.
- ⑤ 엄마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며 '나'에게 공부를 하라고 한다.

02 서술자인 '나'는 이 글의 주인공이자, 예린이라는 이름의 학생이며, 엄마에게는 '춘기'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 오답 피하기

- ㉠, ㉡, ㉢ '엄마'를 가리킨다.
- ㉣ 엄마의 어린 시절 다른 어른들을 뜻한다.

03 '나'는 모범생인 척하는 가면을 쓰고, 그것이 어른들을 대하기 편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선생님이 편애한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 ② 문제아인 친구들과 항상 대립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③, ④ 모범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04 <보기>는 '나'와 엄마가 입장이 달라 서로 대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엄마 몰래 검색한 '나'와 귀가한 엄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나'가 윤선이와 의견 차이를 보인 적은 없다.
- ② <보기>에 할머니와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 ④ '나'는 엄마의 바람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 ⑤ <보기>에 아빠를 그리워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05 '나'는 집에 혼자 있어서 무섭다. 그래서 낯선 피자 배달원이 왔을 때, 집에 어른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

06 '견주다'는 '둘 이상의 사물을 질이나 양 따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 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사용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③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달려' 등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② '읽어' 등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④ '홀겨' 등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⑤ '닭아' 등으로 고쳐 써야 한다.

07 할머니는 엄마처럼 '나'에게 학생다운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가출하기로 생각한 것을 하지 않기로 한다.
- ② 엄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나'에게 숨겼다.
- ④ 할머니는 잔소리 대신 '나'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 ⑤ 엄마가 잠든 후, '나'는 할머니에게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08 (나)에서는 '나'와 엄마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다. 이에 해당하는 구성 단계는 절정이다.

09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와 자신 사이의 비슷한 점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는 대신, 엄마에 대한 감정이 풀리기 시작한다.

10 (나)와 (다)의 글쓴이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글쓴이가 '나'라는 서술자로 등장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것이 수필의 특징이다.
- ③ 글쓴이는 학생이며, 학교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④ 수필에서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가 소재가 된다.
- ⑤ 일상의 경험과 그 감정을 솔직하게 쓰고 있다.

11 독자는 글을 읽으며 자신과 비슷한 경험에 관해 공감을 하게 된다.

12 선생님은 학생들이 글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래 학생들이 쓴 글을 보여 주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 4. 정보를 요리합니다

### [1] 요약하며 읽기

#### ● 확인 문제

본문 111~113쪽

01 ⑤ 02 ④ 03 ① 04 규칙이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05 ④ 06 ④ 07 ① 08 ② 09 ④ 10 ④

01 요약은 독자가 읽었던 내용을 기억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므로 요약하기를 통해 글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기억하기는 힘들다.

02 (가)는 설명문의 처음 부분이다. 처음 부분에서는 화제를 제시하고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앞으로 나올 내용과 글을 쓴 목적을 짐작할 수 있다. 앞의 내용 정리는 대부분 글의 끝부분에서 한다.

03 문장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문장, 즉 중심 내용이 드러난 문장이 직접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중심 문장을 골라 요약한다.

04 모바일 게임은 규칙이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05 (다)는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여러 문장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여러 문장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중심 문장을 만들어 내는 '재구성'의 방법을 활용해서 요약할 수 있다.

06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재미가 없다고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으로 모바일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07 모바일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여럿이 동시에 같은 게임에 접속하여 편을 나눈 뒤에 상대방과 겨루거나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게임을 즐기기도 하므로 혼자서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모바일 게임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가상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일들로 ②는 4가지 흥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오답 피하기

- ① 임무를 완수하였을 때 기쁨을 맞본다고 하였다.
- ③ 다른 사람을 경쟁에서 이겼을 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월한 기분을 누린다고 하였다.

④ 가상 현실이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낯선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09 이 글의 처음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대중화된 현황을 소개하고 가운데 4개 문단에서는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마)는 4번째 까닭을 설명하는 문단에 해당한다.

10 (바)에서 글쓴이는 모바일 게임에 지나치게 빠지면 게임에 중독될 위험이 있으므로 게임을 하는 사람 스스로가 너무 몰입하지 않게 적당히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 ○ 오답 피하기

- ① 모바일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다.
- ② 모바일 게임 자체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⑤ 모바일 게임에 너무 몰입하지 않게 조절하고 적당히 즐기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했다.

#### 핵심 쏙

본문 111~113쪽

- 1 대중화, 독자 2 선택 3 규칙, 시간, 장소, 즐거움, 흥미 요소
- 4 재구성 5 선택

####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114쪽

01 ⑤ 02 ② 03 권선징악

01 요약할 때는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포괄적인 상위 개념을 담고 있는 문장은 삭제하기에 적절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02 이야기 글이므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요약해야 한다.

03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이라는 뜻의 '권선징악'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소단원 핵심 정리

본문 115쪽

- ① 모바일 게임 ② 논설문 ③ 선택 ④ 삭제 ⑤ 재구성 ⑥ 일 변화 ⑦ 협력 ⑧ 재주 ⑨ 활판 ⑩ 번개 ⑪ 먼눈 ⑫ 머슴살이

##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16~117쪽

01 규칙이 간단하다.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02 ④ 03 ③  
04 ① 05 ③ 06 딸이 무조건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내기의 상대를 자신의 집 머슴으로 삼으려 함.

- 01 (가)와 (다)에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나)에서 규칙이 간단한 모바일 게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02 (가)~(다)는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다양한 까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의 단점과 그 해결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
- 03 (나)의 중심 내용은 ‘모바일 게임은 대부분 규칙이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이다. (나)는 중심 내용이 첫 번째 문장에 드러나 있으며 나머지는 그 중심 내용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충 설명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 04 이 글은 구어체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옛날 어느 고을에~’로 시작하는 부분과 구어체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표현에서 독자들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지 알 수 없다. 과장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 지어 냈을 가능성이 높다.
- ③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은 드러나지 않으며, 이러한 이야기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상반된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05 이야기의 줄거리를 들려주려면 내용을 요약하여 충실하게 전달해야 하므로 창작 의도를 생각하며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④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할 때는 인물의 말과 행동, 사건의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따져본다.
- ⑤ 글의 세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염두에 둔다.
- 06 ‘누구든지 우리 딸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서 ~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 되오.’라는 부분에서 딸의 재주만 믿고 내기를 통해 내기의 상대를 머슴살이시키려는 구두쇠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

## 소단원 고난도 문제

본문 118~119쪽

01 ③ 02 ④ 03 ① 04 ③ 05 ② 06 딸의 재주를 믿고 전 재산을 내기에 걸었던 모습과 내기에서 지자 땅을 치고 통곡하며 제발 재산을 다 가져가지 말라고 썩썩 비는 모습에서 쫓대가 없고 비굴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01 (다)에서 휴대 전화를 들고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끼리 한데 어울리는 모임이 있고, 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이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또 다른 재미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③의 모바일 게임이 주로 혼자 하는 게임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가)에서 모바일 게임은 규칙이 간단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나)에서 사람들은 틈틈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하였다.
- ④ (라)에서는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에 빠져드는 4가지 흥미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 ⑤ (마)에서는 모바일 게임에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 02 직장인들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하고 이때 일을 하는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내용은 모바일 게임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의 구체적인 예에 해당한다. (라)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흥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가상 현실이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다른 사람을 경쟁에서 이기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월한 기분을 누리기도 한다고 하였다.
- ③ 임무를 완수하였을 때 기쁨을 맛본다고 하였다.
- 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 03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므로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한자성어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 ③ 금상첨화(錦上添花)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난형난제(難兄難弟)는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낮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 ⑤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04**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어 <보기>에서 설명한 고전의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번개와 구두쇠의 딸이 출발할 때 먼지만 폴짝 일으키고 안 보인다는 부분과 활꾼이 멀리서 활을 쏘아 번개의 매듭을 푸는 장면은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② 내기에서 진 사람들을 자신의 집 머슴으로 삼는 구두쇠나 딸은 악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재주꾼은 내기에서 이겨 구두쇠로부터 억울하게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을 다 구하고 구두쇠 부녀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선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④ 서로 도와 위기를 극복하고 내기에서 승리하는 세 재주꾼의 모습에서 서로 돕고 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⑤ 구두쇠는 내기에서 져서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세 재주꾼은 내기에서 승리하여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을 구해 주는 내용을 통해 ‘권선징악’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05** ①은 ‘뭉이거나 감기거나 얹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②의 ‘풀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축이나 사람 따위를 우리나라 틀에 가두지 아니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동음이의어로 ‘액체에 다른 액체나 가루 따위를 섞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생각이나 이야기 따위를 말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06** (가)의 고약한 구두쇠가 딸의 재주만 믿고 내기를 한다는 부분과, (라)의 내기에 지자 ‘제발 재산을 다 가져가지 말라’고 비는 부분에서 줯대가 없고 비굴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2] 통일성 있게 글 쓰기

● **확인 문제**

본문 121~128쪽 ●

-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③ 06 ① 07 ② 08 ⑤  
09 ③ 10 ③ 11 ③ 12 떡볶이의 변신 13 ④ 14 ①, ③  
15 떡볶이의 역사 16 ② 17 ③ 18 ② 19 ③ 20 ② 21 ④  
22 ② 23 ③

**01** ①은 인터넷 매체이므로 ④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인터넷 매체에서는 누구나 자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선별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컴퓨터나 휴대 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 ②, ③ 인터넷에는 영상, 음성 등의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 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02** 통일성은 글 전체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고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글의 주제이다.

**03**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각 문단이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문단 내 문장끼리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04**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자료를 여러모로 활용하기에 편리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자료를 취사선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2]는 ‘전쟁 중에 고추장과 밀가루를 구하는 것이 쉬웠을 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서 자료의 신뢰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① 고추장 떡볶이의 유래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글의 주제와는 연관성이 있다.
- ② 고추장 떡볶이의 유래는 알 수 있지만 모양은 알기 어렵다.
- ④ 공신력 있는 출처인지 알 수 없으며, 무조건 자료를 믿어서도 안 된다.
- ⑤ 글의 주제와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자료는 아니다.

**06** ㉠은 기사문의 구성 요소 중, 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 전체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제목의 역할을 한다.

**오답 피하기**

- ② 기사문의 구성 요소에서 부제는 표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소제목이다.
- ③ 전문은 기사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요약한 부분에 해당한다.
- ④ 본문은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부분이다.
- ⑤ 해설은 기사에 대한 참고 사항이나 설명, 글쓴이의 주관적 견해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07** 필요한 자료를 즉각적으로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통신 매체가 가진 장점이다.

**08** 떡볶이의 역사를 주제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궁중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자료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오답 피하기**

- ① [3]은 인쇄 매체 자료이다.
- ② [4]는 방송 매체 자료로 고추장 떡볶이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④ [5]는 인쇄 매체 자료로 떡볶이의 기원을 말한 부분만 활용할 수 있다.

**09** 제시된 자료들에서 고추장 떡볶이의 가격은 알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1]에서 알 수 있다.
- ② [3]에서 알 수 있다.
- ④ [6]에서 알 수 있다.
- ⑤ [2]에서 알 수 있다.

**10** 개요에는 떡볶이의 기원과 고추장 떡볶이의 등장, 떡볶이의 다양한 변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1** ㉠은 고추장 떡볶이의 유래에 대한 자료이므로 3문단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12** 떡볶이가 시대와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변화해 간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떡볶이의 변신'이라는 소제목을 붙일 수 있다.

**13** 이 글은 기사문이다. 기사문은 평범한 사실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보도할 만한 사건이나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글이다.

**14** ㉠은 기사문의 도입 부분으로 글의 주제를 소개하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피하기**

- ②, ④ 글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⑤ 구체적인 정보는 보통 기사의 가운데 부분에서 제시되며, ㉠에는 떡볶이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드러나 있지 않다.

**15** ㉠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떡볶이의 유래와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주제가 떡볶이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6** <보기>는 떡볶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기록에 대한 내용이므로 '떡볶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이라는 내용을 고려하여 ㉠에 들어가야 한다.

**17** <보기>는 '떡볶이의 역사'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삭제한 것이다.

**18** 떡산적은 고기 산적에 떡을 꿰어 볶은 형태의 음식인데, 이것이 형태가 바뀌어 현재 궁중 떡볶이라는 이름으로 전해 오는 음식이 되었으므로, 떡산적이 궁중 떡볶이의 다른 이름인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③, ④, ⑤ [2]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19** 6·25 전쟁 이후 쌀이 귀하던 시절 비싸지 않은 밀가루 가래떡으로 떡볶이를 만들면서 떡볶이를 민간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② 밀가루 가래떡에 고추장이 더해지면서 고추장 떡볶이가 만들어지고 고추장 떡볶이가 큰 인기를 끌게 되었지만 고추장이 민간에서 떡볶이를 즐길 수 있게 된 직접적인 까닭은 아니다.

**20** [3]에서 고추장 떡볶이의 가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없으며, 고추장 떡볶이는 소박한 재료로 만든 민간에서도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고 했으므로 비싸지 않다는 걸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즉석에서 볶아 먹는 신당동 떡볶이가 크게 유행하면서'라는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는 질문이다.
- ③ '밀가루로 가래떡을 빚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는 질문이다.
- ④ '왕실이나 양반가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음식인 떡볶이가 밀가루라는 재료를 만나 민간에서도 즐길 수 있는 친근한 음식으로 변신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는 질문이다.

⑤ '6·25 전쟁을 겪으며 밀가루 떡과 고추장이라는 소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으로 변하였고'라는 부분을 근거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21** 퓨전 메뉴는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 새롭게 만드는 음식을 이르는 말인데, '불고기 피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호박전, 된장찌개, 산채 비빔밥은 음식이 가진 고유의 형태에서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므로 퓨전 음식이 아니다.

**22** 문맥상 ㉠에는 앞의 내용과 반대의 의미로 연결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는 앞뒤 문장을 반대되는 의미로 연결하는 말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또한'은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같거나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추가로 진술할 때 사용한다.
- ③ '그리고'는 앞의 내용을 부연하거나 보충할 때 사용한다.
- ④ '그런데'는 화제를 전환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연결할 때 사용한다.
- ⑤ '그러므로'는 앞뒤 문장을 원인과 결과로 연결할 때 쓰는 말이다.

**23** 사진 자료는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우며, 글을 읽기 전에 먼저 눈에 들어와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 핵심 짚

본문 121~128쪽

1 역사, 인터넷 2 주제 3 떡볶이, 신뢰성 4 통일성, 문단 5 흥미 6 궁중 7 시의전서 8 고추장 9 사례

#### 학습 활동 응용 문제

본문 129~130쪽

01 떡볶이의 역사를 다루는 가운데 부분에서 쓰기 위해 02 ③ 03 ③ 04 ㉠→㉡→㉢→㉣→㉤→㉥ 05 ⑤ 06 ③

**01** <보기>의 내용을 처음 부분에서 2문단으로 옮긴 이유는 처음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소개하는 부분이라 본격적인 떡볶이의 역사를 다루는 가운데 부분에서 쓰기 위해서이다.

**02** 떡볶이는 원래 궁중 요리인 떡산적의 형태가 양반가로 전해지면서 궁중 떡볶이의 형태로 변화했으며, 6·25 전쟁 이후 밀가루 가래떡과 고추장이 만나 고추장 떡볶이가 생겨났고, 오늘날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다.

**03** '서론-본론-결론'은 논설문의 구성 방식으로 모든 통일성을 갖춘 글이 그러한 구성 방식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04** 먼저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된 뒤 개요를 작성한다. 개요를 바탕으로 통일성을 고려하여 글을 쓰고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점검하고 수정·보완한다.

**05** 신문이나 잡지가 인터넷이나 책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다.

**06** 우울증 치료에 좋다는 것은 자전거 타기의 좋은 점 중 정신적 행복 부분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소단원 핵심 정리

본문 131쪽

① 주제 ② 자료 ③ 통일성 ④ 역사 ⑤ 떡산적 ⑥ 궁중 ⑦ 고추장 ⑧ 주제 ⑨ 중심

####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32~133쪽

01 ④ 02 ⑤ 03 ③ 04 부제, 표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05 ④ 06 ① 07 6·25 전쟁 이후 쌀이 귀하던 시절 비싸지 않은 밀가루 가래떡으로 떡볶이를 만들면서 떡볶이는 민간에서 즐길 수 있는 서민 음식이 되었다.

**01** (라)는 고추장 떡볶이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자료이다.

**02** '떡볶이의 역사'가 주제이므로 (마)에서 궁중 떡볶이에 들어가는 재료가 제시된 부분은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앞부분의 떡볶이라는 한글 명칭이 처음 보이는 기록 부분만 활용할 수 있다.

**03** (다)는 신문 자료로 인쇄 매체에 해당한다. 영상 및 음성의 복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⑤ 인쇄 매체 자료의 특징에 해당한다.
- ④ 방송 매체 자료의 특징에 해당한다.

**04** ㉠은 기사문의 구성 요소 중, 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05** (라)에서 다양한 떡볶이의 종류는 소개하고 있으나 그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② 떡볶이의 변화 과정은 (나), (다), (라)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료(史料)는 (나)에서 찾을 수 있다.

⑤ 과거의 떡볶이와 고추장 떡볶이의 유래, 현재 떡볶이의 모습까지 다루고 있다.

**06**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을 의미하고, 의견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은 객관적이고 의견은 주관적인 성격을 지닌다. ㉠은 떡볶이에 대해 느끼는 글쓴이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 의견에 해당한다.

**07** (다)에서 떡볶이가 서민 음식이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6·25 전쟁 이후 쌀이 귀하던 시절 비싸지 않은 밀가루가 래떡으로 떡볶이를 만들면서 떡볶이는 민간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

**소단원**  **고난도 문제**

본문 134~135쪽

**01** ④ **02** ③ **03** ㉠ 떡산적, ㉡ 고추장 떡볶이 **04** ① **05** ③ **06** ⑤

**01** (다)는 글의 끝부분으로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하고 있다.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개요 처음 부분에 「시의전서」에 등장하는 떡볶이의 명칭에 대한 내용이 (나)에서는 빠져 있다.

② (다)에는 떡볶이의 다양한 변신 사례로 해물 떡볶이, 자장 소스 떡볶이, 토마토소스 떡볶이 등 퓨전 메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③ (나)는 글의 처음 부분으로 화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02** 3문단은 고추장 떡볶이의 등장과 민간으로의 전파를 다루고 있으므로 궁중 떡볶이의 인기에 대한 내용은 통일성에 어긋난다.

**03** (가) 개요의 2문단에서 떡볶이의 원형이 떡산적이고 떡산적이 오늘날의 궁중 떡볶이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고, 3

문단에서 고추장 떡볶이의 등장과 관련된 내용을, 4문단과 (다)에서 변화된 떡볶이의 모습, 퓨전 떡볶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떡볶이는 ‘떡산적→궁중 떡볶이→고추장 떡볶이→퓨전 떡볶이’의 순으로 변화했다.

**04** (가)는 자전거가 널리 사랑받아 온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 자전거를 타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자전거의 기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05** 브레이크 부품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은 (가)에서, ㉡은 (나)에서, ㉢은 (다)에서, ㉣은 (라)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6** ㉢은 ‘자전거를 타면 좋은 점’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적으므로 글의 통일성을 위해서 삭제해야 한다.

 **대단원 종합 문제**

본문 136~141쪽

**01** ① **02** ④ **03** ⑤ **04** (1) 모바일 게임은 대부분 규칙이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2)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는 ‘누구나’와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한다. **05** ③ **06** ④ **07** 게임을 하는 사람 스스로가 게임에 너무 몰입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 **08** ② **09** ④ **10** ⑤ **11** ③ **12** ④ **13** ① **14** ④ **15** ③ **16** ① **17** ② **18** ④

**01** (가)의 중심 내용은 첫 번째 문장에 나타난다.

**02** 이 글은 설명문이므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해야 한다. 글쓴이의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은 수필과 같은 문학 작품에 어울리는 방법이다.

**03** (다)는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여러 문장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재구성’하기를 활용하여 여러 문장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 문장을 <보기>와 같이 새로 만들어야 한다.

**04** 요약의 방법 중 ‘삭제’는 세부 내용, 반복되는 문장, 수식하는 말, 예시 등 중심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삭제하는 것이다. ㉠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와 ‘누구나’가 반복되는 내용으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를 삭제해서 중심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 05 (나)에서는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에 빠져드는 여러 가지 흥미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가상 현실을 통한 현실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의 체험 역시 흥미 요소 중 하나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에서는 모바일 게임에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함께 하며 얻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 게임의 장점, 즉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② (가)와 (나) 모두 모바일 게임이 가지는 학습적 효과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④ (다)에서는 모바일 게임을 적절히 즐기는 자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모바일 게임과 집중력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⑤ (다)는 (가)와 달리 모바일 게임의 중독이라는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06 ‘탐닉’은 ‘어떤 일을 몹시 즐겨서 거기에 빠짐.’이라는 의미이다. ④는 ‘중독’의 의미 중 하나이다.

- 07 (다)에는 글쓴이의 의견, 즉 의도가 드러나 있다. 글쓴이는 모바일 게임의 중독성을 지적하고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함을 당부하고 있으므로, 의견이 드러난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한다.

- 08 이 글은 설화로, 설화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일들이 발생한다. 사실과 비교하며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살피는 것은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을 때 고려할 사항으로 이 글을 읽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③, ④ 이 글과 같은 이야기 글은 인물들의 성격과 갈등 관계, 사건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읽는다.  
 ⑤ 사건의 전개 과정과 해결 과정을 통해 이야기의 주제, 즉 이야기에 담긴 의도가 드러난다.
- 09 이야기 글의 줄거리를 요약할 때는 핵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진행과 사건 해결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활꾼’이 ‘먼눈’에게 부탁한 것은 핵심 사건이 아니며, 내기의 승리 과정을 포함하는 내용이 아니다. ④에는 ‘활꾼’과 ‘먼눈’의 도움으로 ‘번개’가 위기에서 벗어나 달리기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10 구두쇠의 딸은 반칙을 일삼는 비열한 성격이지만 ‘딸’이라는 이름에 그러한 특징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활꾼’, ‘번개’, ‘먼눈’, ‘구두쇠’는 각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드러내는 이름이다.

- 11 (다)는 진화된 떡볶이의 종류를 소개하는 자료로 다양한 떡볶이의 변신 사례를 소개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에는 떡볶이의 전통적인 제조법은 나와 있지 않다.  
 ② (나)는 떡볶이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빨간 떡볶이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로 고추장 떡볶이의 유래를 알 수 있지 고추장의 유래를 알 수는 없다.  
 ④ 궁중 떡볶이 만드는 방법은 ‘떡볶이의 역사’라는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낮다.  
 ⑤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가), (나), (다)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12 자료를 수집할 때는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한다.

- 13 ‘국민 간식 떡볶이 출세했네’는 표제로 내용 전체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제목의 역할을 하고, ‘궁중에서 길거리로, 다시 일품요리로 변신’은 표제를 보완하는 소재목인 부제에 해당한다.

- 14 (라)는 고추장 떡볶이의 유래와 민간으로의 전파를 설명하고 있다.

- 15 떡볶이의 다양한 요리법은 ‘떡볶이의 역사’라는 글의 주제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개요에서 처음 부분에 있던 ㉠의 내용은 글에서는 ㉡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④ 추가된 내용을 (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6 사진 자료 역시 글의 주제, 글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고추장 불고기 사진은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고, 글에도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17 ㉠ 뒷부분의 문장은 앞부분의 사례를 일반화해 주는 내용이므로, ㉠에는 ‘이처럼’이 들어가야 한다.

- 18 (라)의 서민 음식으로 변신한 떡볶이의 새로운 면모는 ‘떡볶이의 역사’라는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⑤ (마)는 현재의 떡볶이의 다양한 모습과 진화할 미래의 떡볶이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변신하는 떡볶이’라는 문단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다.

01 ③ 02 ① 03 초록 껌 04 엄마와 '나'의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음을 상징한다. 05 ③ 06 ⑤ 07 ③ 08 ③ 09 ⑤ 10 자아 11 ③ 12 ④ 13 ③ 14 ⑤ 15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16 ④ 17 ② 18 모바일 게임에 너무 빠져들면 게임에 중독될 위험이 있으므로, 게임을 하는 사람 스스로가 게임에 너무 몰입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 19 ② 20 ① 21 ④ 22 ⑤ 23 ⑤ 24 ① 25 ④

01 이 글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사춘기 소녀인 '나'가 머리를 염색하여 엄마와 갈등을 겪다가 할머니를 통해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갈등이 해결된다는 이야기이다.

02 엄마가 '나'를 '춘기'라고 부르는 것은 '나'가 사춘기에 나타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이다. '나'가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은 것은 자고 있는데 책상 위에 있던 휴대 전화가 울렸기 때문이지, 사춘기에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② 방에서 엄마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사춘기 소녀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③ 사춘기에는 혼자만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기도 한다.
- ④, ⑤ 엄마의 잔소리가 싫어서 화를 내고 침대에 벌렁 눕거나 이불을 뒤집어써 버리는 것도 사춘기에 있을 법한 행동이다.

03 엄마는 '나'가 '초록 껌'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초록 껌'을 내밀며 공원으로 운동하러 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초록 껌'을 주는 것은 엄마가 나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04 엄마와 '나'가 "함께 '딱딱' 소리 내어 씹는 껌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져서 두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불러서 화음을 아름답게 이루는 '이중창' 같다고 했으므로, ㉠은 엄마와 '나'의 갈등이 해소됐음을 상징한다.

05 "사과는 오랫동안 충분히 익어야 달고 맛있단다. 햇빛도 맘껏 쬔고 별빛도 맘껏 받고 비도 맞고 바람도 받고 이슬도 먹고, 먹고……."라는 부분에서 '햇빛, 별빛, 비, 바람, 이슬'은 사과가 달고 맛있게 익어 가기 위해 겪어 내야 할 시련, 고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어른이 되는 과정 역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단지 나이를 먹고 몸이 자란다고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06 '나'는 어른인 척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무섭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빠가 집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07 (가)의 '잘생겨서'는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인 소재가 아니다. 이 글을 통해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겪는 일들도 주의 깊게 살피고 돌아보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짧은 분량이고 간단한 사건을 담았지만 재미를 주는 글이다.
- ② 영어 수업 시간에 생긴 일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 ④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간단한 일이지만 글쓴이만의 개성적인 시각으로 주의 깊게 살펴서 재미있는 글이 탄생하였다.
- ⑤ 글의 마지막에 '아마도 잘생겨서일 것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글쓴이가 제목을 '잘생겨서'라고 지은 이유를 알 수 있다.

08 (나)의 글쓴이는 스스로 머리를 깎다가 너무 많이 잘라서 우스꽝스럽게 되었다. 그런 후 미용실을 찾았지만 이미 너무 짧아서 이상한 스타일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옆친 데 뿔친 것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하린이다. 하린이는 바지에 묻은 껌을 떼려다가 바지에 구멍이 났고, 수선을 하였지만 이미 구멍이 나서 바지 모양이 우습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송이의 경험은 운이 좋았던 경험으로, (나)의 글쓴이의 경험과 성격상 거리가 있다.
- ② 연성의 경험은 사고가 날 뻔했다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불행한 (나)의 글쓴이의 경험과 성격상 거리가 있다.
- ④ 상현이의 경험은 (나)의 글쓴이의 경험과는 반대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진 경험이다.
- ⑤ 성희의 경험은 노트북을 망가뜨릴 뻔한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다행히 말끔하게 수리를 했다는 것으로 옆친 데 뿔친 격인 (나)의 글쓴이의 경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09 글의 첫 문장인 ㉠은 글쓴이가 겪은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상적인 표현이다. (나)는 직접 앞머리를 다듬다가 머리 모양이 우스꽝스럽게 되어 버린,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경험을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하여 글에 재미를 더하고 있다.

10 경험을 담은 글 쓰기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성찰할 수 있으며, 독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 체험하며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경험을 담은 글 쓰기는 글쓴이와 독자 모두에게 자아를 성찰할 계기를 제공한다.

11 제목을 먼저 정할 수도 있지만 좋은 제목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경험을 다 정리하고, 글을 다 쓴 다음에 정해도 된다. 또, 처음 정한 표현보다 주제를 잘 드러내고, 글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12 (가)의 중심 내용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다.’이다. 따라서 선택의 방법으로 (가)를 요약할 때는 첫 문장을 선택해야 한다.

13 (나)의 중심 내용은 ‘모바일 게임은 대부분 규칙이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이다.

14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들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근무가 끝난 뒤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할 수 있다. 근무 시간 중에 게임을 하는 것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15 (다)는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여러 문장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여러 문장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한다. (다)의 중심 문장은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이다.

16 (라)는 개별적,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으로 표현하는 ‘일반화’의 방법을 사용해 요약해야 한다. 모임을 통해 게임을 공유하고, 타인과 게임 이야기를 나누고, 여럿이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을 즐기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하여 상위 개념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함께 하며 얻는 즐거움’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선택: 글의 중심 내용이 직접 드러난 부분을 선택한다.
- ② 삭제: 중심 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은 삭제한다.
- ③ 첨가: 요약의 방법이 아니다.
- ⑤ 재구성: 중심 문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제시된 내용으로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든다.

17 ‘게임에서 서로 만나고 소통하며 즐거워한다’는 내용은 (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마)에서 설명한 흥미 요소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바)에는 모바일 게임에 지나치게 빠져들면 중독될 위험이 있으므로 스스로 조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당부가 드러난다.

19 게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세상과 대화하는 데 치중하게 되면 게임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

20 (가)는 처음 부분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하여 모바일 게임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 (나), (다), (라), (마)는 중간으로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까닭을 네 문단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으며, (바)는 끝부분으로 모바일 게임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 적당하게 즐겨야 한다는 글쓴이의 당부가 담겨 있다.

21 매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에는 모든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을 따져 봐야 한다. 특별히 영상 매체가 인쇄 매체보다 신뢰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22 ‘떡볶이’라는 한글 명칭이 처음 보이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마)는 떡볶이의 기원,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 떡볶이의 종류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떡볶이 종류를 이야기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3 ㉞은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가 떡산적을 즐겨 먹었다’고 하는 내용에서 영조의 이야기로 옮겨 온 것이고, 영조가 아들인 사도 세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떡볶이의 역사’라는 글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으니 삭제해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떡산적이 오늘날 궁중 떡볶이의 유래가 되었음을 설명할 때 쓸 수 있다.
- ② 떡볶이의 유래를 『승정원일기』라는 사료를 통해 제시할 때 쓸 수 있다.
- ③ 떡볶이가 원래 궁중과 양반가에서 즐기던 귀한 음식이었음을 설명할 때 쓸 수 있다.
- ④ 떡볶이가 궁중에서 즐기던 귀한 음식임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 예로 활용할 수 있다.

24 ㉞는 떡볶이의 유래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2문단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25 통일성 있는 글이란 글 전체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모이는 글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제와 세부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야 한다. 주장하는 내용이 신뢰도가 높고 타당해야 한다는 것은 주장하는 글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

-----

-----

-----

-----

-----

-----

-----

-----

-----

-----

-----

-----

-----

-----

-----

-----

-----

-----

-----

-----